

한·일 합동세미나, 5월 30일부터 1박 2일간 경주에서 개최

합동세미나 추진위원회, 주요 일정 및 프로그램 논의



이사회에 참석한 임원진이 한·일 합동세미나 개최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는 첫 행사인 만큼 합동세미나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본 회의에서는 '2024 한·일 합동세미나 일정 및 예산 조율의 건'에 대한 안건을 상정했다. 이에 앞서 협회는 이번 합동세미나 개최지로 제247차 이사회를 통해 경상북도 경주시로 선정할 바 있다. 일정은 오는 5월 30일부터 5월 31일까지 1박 2일간 진행한다.

이날 참석한 임원진은 주요 일정 및 프로그램을 비롯한 예산 집행에 관한 부분을 '한·일 합동세미나 추진위원회'에 위임기로 의견을 모았다.

협회는 지난 제249차 이사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김관홍 부회장(메디칼업저버 발행인)을, 추진위원으로 오경섭 감사(일요저널 발행인)를 추대할 바 있다.

이에 추진위원회는 지난 4월 11일 협회 회의실에서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김관홍 위원장, 김광탁 회장, 오경섭 위원, 하현봉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가 비용으로 1인당 30만원을 받기로 결정했다. 또한 협회 임원진을 포함한 회원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는 데 힘쓰기로 했다.

이어 세부 일정 및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했다. 협회 사무국은 합

김광탁 회장, 임기 후 첫 고문단 간담회 개최



김광탁 회장을 비롯한 고문단이 간담회에 참석해 협회 발전을 위한 의견을 공유했다.

한국전문신문협회(회장 김광탁)는 지난 4월 24일 제31대 집행부 출범 이후 고문단 첫 간담회를 서울 인사동에 위치한 옥정에서 개최했다.

이날 상견례는 김광탁 회장을 비롯한 박두환 명예회장, 함용한·김시중·유태우·양영근 고문이 자리를 함께했다.

먼저 참석한 고문들은 먼저 제31대 회장으로 취임한 김광탁 회장에게 축하를 전했다. 이어 김광

탁 회장은 참석한 명예회장과 고문에게 첫 인사와 함께 오는 5월 30일부터 1박 2일간 경주에서 개최하는 한·일 합동세미나 진행 경과를 설명했다.

이날 고문들은 "현재 협회의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다"면서 "임기 동안 협회의 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에 김광탁 회장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 활동하겠다고 답했다.

이진숙 기자 kosna1964@naver.com



한·일 합동세미나 추진위원회가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전문신문협회(회장 김광탁)는 지난 4월 4일 협회 회의실에서 '제250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2024 한·일 합동세미나 일정 및 예산 조율의 건 등이 안건으로 상정, 의결됐다. 이어

업무보고와 재무보고도 이뤄졌다.

먼저 김광탁 회장은 회의 진행에 앞서 "코로나19로 인해 잠정 연기됐던 한·일 합동세미나가 드디어 올해 5월에 경주에서 열릴 예정이다"며 "임기를 시작하고 진행하

동세미나 프로그램에 대해 대주제로 '전문신문의 미래발전 전략'을 선정했다고 보고했다.

이어 △정부와 국민들은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는가? △종이신문의 구독 감소와 격변하는 정보환경에 전문신문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등

을 소주제로 선정해 주제발표 및 종합토론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후 추진위원회는 지난 4월 25일 2차 회의를 통해 최종 일정 및 예산을 조율했다. 이후 추가 회의를 열어 최종안을 확정키로 했다.

이진숙 기자 kosna1964@naver.com

2024 한·일 합동세미나 개최 안내

한국전문신문협회(회장 김광탁)가 창립 60주년을 맞아 일본전문신문협회(이사장 이리사와 토오루)와 코로나19로 인해 무기한 연기됐던 '2024 한·일 합동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부터 명칭을 기존 '합동연수회'에서 '합동세미나'로 변경하여 열리며, 그동안 매 5년을 주기로 양국 협회가 각 1회씩 개최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행사는 한국협회에서 일본 협회를 초청하여 진행될 계획입니다.

많은 회원사분들께서 참가하시어 양국이 전문 언론 산업에 대한 정보와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폭 넓은 관계를 이어가는 교류의 장이 펼쳐질 수 있도록 자리를 빛내주시길 바랍니다.

- ◆ 일시 : 2024년 5월 30일(목)~5월 31일(금)
- ◆ 장소 : 경주 코모도 호텔
- ◆ 참가 대상 : 회원사 대표 및 발행인(대리참가 가능)

문의 ☎ 02-334-7251~2(한국전문신문협회 사무국)



‘스마트 기술 BIM’ 공사비 갈등 해법 제시

한국건설신문

한국건설신문(발행인 양기방)이 제5회 스마트건설세미나 ‘BIM for Smart Construction Management’를 지난 15일 논현동 건설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 건설신문이 주최하고 스마트건설교류회가 주관했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축사를 통해 “이번 제5회 스마트건설세미나는 매우 시의 적절하게 개최됐으며 발주자·설계자·시공사·스마트기술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품질, 시공성 및 공기 적합성 등 공사비 절감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토목학회 정충기 회장은 축사를 통해 “건설업계뿐만 아니라 도로공사, 토지공사, 철도공단 등 공공기관과 함께 학계 설계 엔지니어링 스마트 기술업체가 함께 모인 뜻깊은 자리”라면서 “공사비 갈등에 대한 문제를 스마트 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는 해법을 제시하고 있어 매우 기대가 된다”고 밝혔다.

성공적인 세미나를 축하하기 위해 귀빈으로 스마트건설교류회 제1대 회장 황준호, 대한토목학회 정충기 회장, 미래도시성장연구소장 유인재(前 감사원 국토해양감사국장), 대한건축학회 前 서치호 회장, 스마트도시건축학회 김도년 회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스마트건설처 문흥철 처



장, 스마트도시협회 황귀현 전무, 대한승강기협회 이인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본 세미나에서는 3개의 세션을 바탕으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먼저 첫 번째 세션에서는 ‘BIM for Construction Process’ 주제로 진행됐다. △흥명건설 최형만 대표 : 골조공사의 시공 BIM 적용(스마트 폼 시스템) △큐픽스 이진우 매니저 : 3D 애즈빌트 디지털트윈을 통한 BIM 플랫폼 활용성의 극대화 방안 △비스온 탐엔지니어링 정혜나 대표 : 디지털 데이터를 활용한 공사 단계별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 사례(경기도서관 광장 및 보행물 건립공사) △계통건설 스마트기술팀 김은영 팀장 : 시공 BIM 활용현황 및 방향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두 번째 세션은 ‘BIM for Project Management’ 주제로 진행

됐다. △더부엔지니어링 김용희 대표 : 무한한 가능성의 BIM ‘더부 INFINITE BIM’ △다공에스엔티 서한석 대표 : BIM을 활용한 3D 철근 모니터링 시스템 △한국도로공사 김경석 연구위원 : 국제표준 기반 BIM 사업관리 체계의 변화 방향 △LH 스마트건설처 이영호 차장 : LH BIM(단지분야 토목부문) 적용지침 및 시범사업 적용사례 소개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마지막 세 번째 세션은 ‘BIM for Asset Management(자산관리)’ 주제로 진행됐다. △한국도로공사 이강혁 책임연구원 : BIM 기반 스마트건설 플랫폼 개발 현황 및 활용방안 △승화기술 박미연 대표 : BIM과 자산관리 연계 활용을 위한 제언 △스마트건설교류회 스마트건설연구소: Building SMART International 해외사례 분석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한국기독교보 직원, 희귀병 안과질환 극복에 힘 보태

한국기독교보

한국기독교보(사장 안홍철) 직원들이 ‘한국기독교보주일’을 맞아 희귀난치성 안과질환 극복을 위한 연구를 위해 힘을 보탰다.

지난 8일 직원 아침경건회 시간에 헌금 178만5000원을 모아 의료법인 실로암안과병원이 ‘눈병 없는 세상, 눈의 고통 없는 밝은 세상’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실로암 연못 형성하여 눈병 없는 밝은 세상 만들기’에 전달했다.

‘실로암 연못 형성하여 눈병 없는 밝은 세상 만들기’는 현대 과학과 의학으로 치료 불가능한 안질환을 정복해 ‘눈의 고통 없는 밝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프로젝트로 국내는 물론 미국 영국 독일 등 저명한 병원과 협력해 난치성 안과 질환 치료에 대한 세미나와 동물실험 등을 통해 신약과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한국기독교보 사장인 안홍철 목사는 “우리가 받은 사랑을 조금이라도 한국교회에 돌려드리자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했다”면서 “작은 금액이지만 난치성 질환으로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새 빛과 새 희망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자 이번 헌금을 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병원장인 김선태 목사는 “안홍철 사장을 비롯한 한국기독교



보 전 직원들의 사랑과 관심이 감사하다”며 “교단지로서 언론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이렇게 고통받는 이웃들을 돌아보며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니 더욱 자랑스럽고 힘이 난다”고 말했다. 이어 “사랑의 헌금이 이 땅에 귀하게 사용되고 한국기독교보도 하나씩 영광돌리는 기관이 되길 기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이 전달한 헌금은 ‘실로암 연못 형성하여 눈병 없는 밝은 세상 만들기’ 연구와 교육기금으로 사용된다.

한편 한국기독교보는 2014년부터 해마다 ‘한국기독교보주일’을 기념해 전 직원들이 헌금을 모아 사랑나눔에 동참하고 있다. 올해로 11년째를 맞은 사랑의 헌금은 인도 교회 건축 사업, 내팔 지원회 지원, 필리핀 아동선교센터(보육원) 지원, 총회장탑100주년기념관 건축 헌금, 포항 지진 피해 성금,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 성금, 코로나19 재해구호, 유은복재단 등에 전해졌다.

‘한국 외식산업의 현황과 발전 방향’ 주제로 토론

한외신문

한외신문을 발행하는 대한한외사협회는 제45대 윤성찬 회장(사진 왼쪽)·정유용 수석부회장(사진 오른쪽)의 취임식을 지난 4일 한외사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임기는 2024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다.

이날 취임식은 회장 및 수석부회장의 당선 경과 및 약력 보고를 시작으로 취임선서, 취임 축하 꽃다발 증정, 취임사, 신임 임원진 인사, 축사, 감사패 전달, 축하떡 절단, 기념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윤성찬 회장과 정유용 수석부회장은 취임 선서를 통해 “대한한외사협회 정관과 제규정을 준수하며 국민건강 증진과 한외학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대한한외사협회 제45대 회장 수석부회장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한외사 회원 앞에 엄숙히 선서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한한외사협회는



지난 2월 28일 열린 대한한외사협회 제45대 회장·수석부회장 선거를 실시한 바 있다.

이날 대한한외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총선거인 2만278명 중 1만3962명이 투표해 68.85%의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기호 2번 윤성

찬 회장·정유용 수석부회장 후보가 총 6567표(47.03%)를 획득해 3811표(27.30%)를 획득한 기호 1번 홍주의 회장·문영준 수석부회장 후보, 2033표(14.56%)를 얻은 기호 4번 임장진 회장·문호빈 수석부회장 후보, 1551표(11.11%)를 득표한 기호 3번 이상택 회장·박완수 수석부회장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당시 ‘이름 빼고 전부 바꾸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건 윤성찬 회장·정유용 수석부회장 당선인은 한외의 위기를 넘어 한외사 절망의 시대가 도래한 상황에서 동네 개원의나 수많은 봉직자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기에 출마하게 됐다면서 3대 원칙, 7대 핵심공약, 10대 혁신공약 등을 제시한 바 있다.



‘한국 외식산업의 현황과 발전 방향’ 주제로 토론



식품외식경제

식품외식경제 박형희 발행인이 ‘노변청담’에 참석해 ‘한국 외식산업의 현황과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노변청담은 식품·외식, 과학, 의료업계 등 다양한 분야 원로들의 모임이다.

발표 이후 코로나19 사태 위기 이후 한국 외식산업의 현황과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 및 발전 방향에 대해 토론 시간을 가졌다.

박형희 발행인은 주제발표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국내 외식기업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승자와 패자가 명확히 나뉘지는 ‘승자독식’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고 전제한 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지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대에 맞는 경쟁력을 키우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해 매출 다각화를 꾀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외식시장이 지속적인 경쟁력을 갖기 위해 가져야 할 자세와 혁신에 대해서도 피력했다.

이에 권대영 전 한국식품연구원 원장은 “외식업의 본질인 맛에 대한 가치를 높여야 한다. 최근 외식업소를 가봐도 전통적인 깊은 맛이 찾기 어렵다. 이는 식품학자들 책임도 크다고 본다”고 말했으며, 고려대학교 이철호 명예교수는 “최근 외식업소에 가면 밥맛이 좋은 곳을 보지 못했다. 일본에선 밥맛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국내 외식업소도 ‘밥’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희대학교 조재선 명예교수는 “정말 혁신해야 한다. 하지만 기성세대들이 혁신을 리드하기엔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나라에서 정책 연구소라도 만들어 혁신을 위한 교육과정을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협회보 칼럼



문자, 시대의 문명과 문화를 만든다

인류의 모든 문명과 문화는 문자 위에 세워졌다. 문자는 불, 바퀴와 더불어 인류의 3대 발명품 중의 하나로 꼽힌다.

불이 인류를 야만에서 문명으로, 바퀴가 수송의 혁신을 불러왔다면, 문자는 인류의 지식과 정보를 보존하고 전달하며 비로소 선사시대에서 역사시대로의 대전환을 불러왔다.

인류 역사의 수많은 생성과 소멸의 과정에서 문자는 낡은 시대를 저물게 하고, 새로운 시대를 불러오는 위대한 힘을 보여 주었다.

최초의 문자가 만들어진 이유는 실생활에서의 필요 때문이었다. 기원전 3500년경부터 수메르인들이 최초로 사용했던 쉐기 문자의 점토판 대부분은 일상의 매매 장부나 영수증이었다. 사회생활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약속들을, 말하면 바로 사라지는 음성언어에 모두 맡길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후 문자는 단순하게 약속을 기록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았다. 추상적인 약속을 기록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통 방식의 혁명을 이끌었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 제도를 끊임없이 개혁해 나갔다.

가장 눈부신 인류의 소통 혁명은 인쇄술에 기반한 문자 대중화에서 비롯되었다. 인쇄기의 발명으로 책이 무한 복제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책이 사람들과 가까워질수록, 책은 점점 더 많이 번역되었고 또 기록되었다. 문자가 곧 소수의 권위와 특권을 유지하는 권력이던 시대는 더는 존재할 수 없었다.

물론 이런 문명을 지탱한 숨은 조력자는 바로 종이였다. 늘어난 책의 수요를 오롯이 종이 가 담당해야 했기 때문이다. 또한 제한

된 지면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담고, 사람들이 책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서체의 개량도 이어졌다.

인쇄술은 인류 지식의 대중화를, 번역은 인류 지식의 확산과 공유를, 기록은 인류 지식의 전승을 이끌었다. 그리고 매체와 서체는 그 시대의 기술을 반영하였다. 우리는 이 장대한 서사의 과정을 문자가 이루어낸 '문명의 혁명', '문화의 혁명'으로 명명하고 있다.

이러한 문명과 문화혁명의 과정을 지나, 오늘 우리는 프로세스(Process), 서비스(Service), 플랫폼(Platform)으로 대변되는 디지털시대의 중심에서 서 있다.

전통적인 방식인 문자와 글쓰기로 이뤄진 휴머니즘과 '구텐베르크적 문화'에서 컴퓨터와 디지털 코드로 대변되는 이른바 '텔레마틱적 문화'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 변화의 과정에서 인류는 각기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새로운 디지털시대에 맞게, 문자에서 기인한 기존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주장과 '의명성, 가상성, 모방성 등, 디지털시대의 역기능을 극복하기 위해 다시 문자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인류가 어느 쪽의 주장에 손을 들어줄지는 아직은 미지수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오랜 세월 동안 인류의 중심에서 위대한 문명과 문화의 혁명을 이끌어온 '문자'는 인류가 존재하는 한 오늘도 그 역사적 사명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인류가 만들어 낸 문자는 단순한 문자가 아닌 위대한 인류의 역사이고, 이성이며, 철학적이고, 정신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문자는 디지털시대가 아니라, 초디지털시대가 도래한다 해도 그 시대의 중심에서 본연의 사명인 그 시대의 문명과 문화의 혁명을 이끌어 나갈 것이다.

방재홍 상임고문(독서신문 발행인)

협회, 4월 전문신문 건강걷기 개최

전문신문산우회(회장 양영근)가 '전문신문 건강걷기' 네 번째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4월 6일 진행했으며, 한국전문신문협회 김광탁 회장을 비롯한 회원사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수도권 지하철 경의중앙선 운길산역에서 모여 북한강변을 산책하며 다가온 봄의 정취를 즐겼다. 이번 트레킹 코스는 김광탁 회장이 직접 안내하며 회원들과 소통했다.

다음 일정은 5월 4일에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코스는 지하철 9호선 봉은사역에서 집결해 도심 속의 천년 고찰 '봉은사'와 강남 도심 속의 세계문화유산 '선정릉'의 한적한 숲길을 산책할 계획이다.

전문신문 건강걷기는 매월 첫째주 토요일에 진행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회원사는 협회 사무국(02-334-7251)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진숙 기자 kosna1964@naver.com



이번달 열린 '전문신문인 건강걷기'에 함께한 회원들이 트레킹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협회보 칼럼모집

◆ 원고내용

각 산업별 이슈에 맞는 주제로 자유롭게 작성

◆ 대상

한국전문신문협회 회원사

◆ 접수방법

웹하드 www.webhard.co.kr
아이디 kosna, 비밀번호 kosna
[GUEST] 폴더 내 등록
메일 kosna1964@naver.com

◆ 문의

☎ 02-334-7251~2

한국전문신문협회는 국립중앙도서관으로 주간전문신문 납본을 대행해 드립니다

누구나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때에는 「도서관법 제20조」와 「동법 시행령 제13조」규정에 따라 그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자료는 국가의 지적문화유산으로 영구 보존하여, 정보 제공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 ◆ 납본대상자료 : 도서, 연속간행물(잡지, 신문, 대학 및 학회지, 정부간행물) 등
- ◆ 제출시기 및 부수 : 발행일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각 2부씩
- ◆ 제출처 : 한국전문신문협회 납본센터,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수집과

한국전문신문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위임을 받아 납본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니 국립중앙도서관에 직접 납본이 어려우신 신문사에서는 자료를 보내주시면 국립중앙도서관 납본을 대행해 드립니다.

우편 및 방문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41길 11 SK V1센터 E동 407호
문의 ☎ 02-334-7251~2

| 현장·단독 |

ICT 시장 AI 범용화...디지털전환 가속

올해 정보통신기술(ICT) 시장에는 인공지능(AI) 범용화와 디지털전환(DX) 바람이 불고 있다. 반도체 성능 혁신이 AI 중심으로 재편되고, AI 중심의 크리에이터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 국내 통신업체들은 AI 시대에 발맞춰 승부수를 던졌다. 통신업체들은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AI 기업 전환을 재차 강조했다.

또 일상 속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안전 및 신뢰성이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안정적인 네트워크 구축과 원활한 데이터 전송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경제·사회적으로 큰 손실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디지털 사회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 확보가 정보통신업계의 핵심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ICT인프라 고도화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정보통신공사업의 중요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디지털 경제의 근간으로서 정보통신공사업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정보통신공사업체들이 제대로 된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숙제가 여전히 많다는 지적이다.

우선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2년 1월 27일 5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행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지난 1월 27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준비가 덜 된 소규모 사업장에 폐업이 속출하고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2년 유예를 요구해 왔다.

특히 전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법안의 소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릴레이 집회를 개최했고, 지난 1일에는 중대재해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과 조



기 정착도 핵심과제로 꼽을 수 있다. 이에 정보통신공사업계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을 앞두고 유지보수·관리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과 조기 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협회는 정보통신설비 점검 및 대가산정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한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적용 범위 확대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표준품셈의 폭넓은 적용을 통해 충분한 공사비를 확보함으로써 고품질 시공을 도모할 수 있는 까닭이다.

표준품셈 이용에 관한 내용은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계약예규에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는 일종의 권고사항인 탓에 대부분의 민간 발주처를 비롯해 상당수 발주기관은 공

사비 산정 시 표준품셈을 빼거나 줄여서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표준품셈 적용범위 확대에 역량을 모으고 있다. 특히 협회는 통신3사와 민간 부문에서도 표준품셈을 의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협회는 표준품셈 제개정 제안을 통해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정보통신설비의 융복합 추세에 발맞춰 신공종을 반영한 표준품셈 발굴, 표준품셈 현실화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한 제·개정 작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기사제공: 정보통신신문(4월 18일) 박남수 기자

농업인 업무상 재해 '넘어짐' 많아...'경운기'·'사다리'서 많이 발생

농촌진흥청은 농작업 활동으로 인한 농업인 업무상 재해 현황을 파악하고 예방 사업 기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한 '2023년 농업인의 업무상 손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표본 농가 1만 2,000가구 만 19세 이상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난해 6월 26일부터 7월 15일까지 방문 면접 방식으로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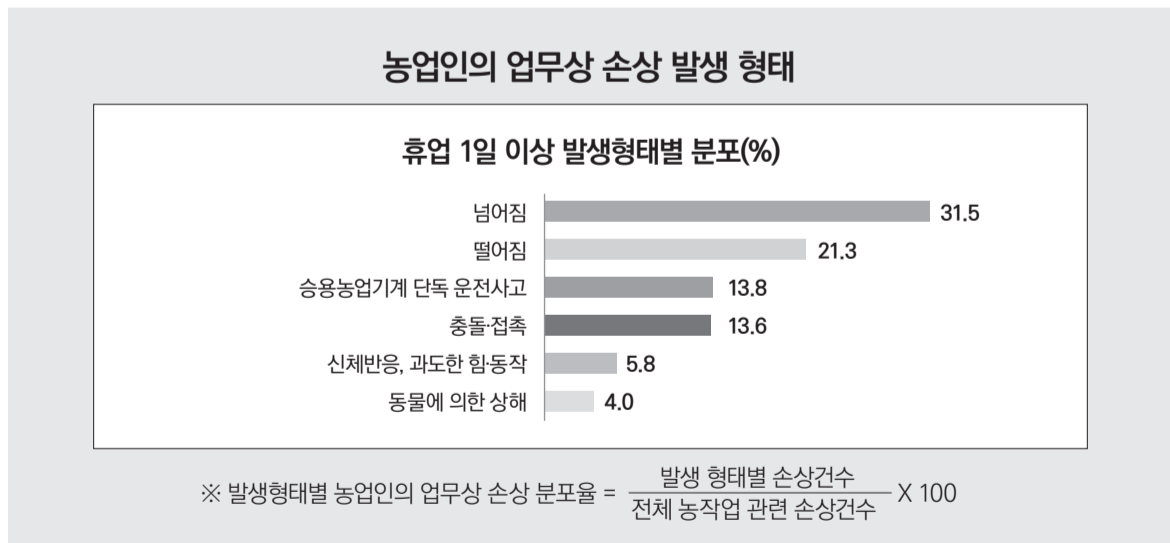
조사 결과, 1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농업인의 업무상 손상(비사망 사고) 발생률은 2.6%로 나타나 2021년 조사 결과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성별에 따라 남성 2.9%, 여성 2.2%로, 여성보다 남성 농업인의 업무상 손상 발생률이 높았다.

나이별로는 50대 미만이 1.0%, 50대 2.0%, 60대 2.8%, 70세 이상이 3.0%로 조사돼 나이가 많을수록 손상 발생률도 높았다. 작목별로는 과수 3.9%, 밭 2.8%, 논 2.7%, 시설 2.3%로 과수 농가 농업인의 손상 발생률이 높았다.

휴업 1일 이상 손상 사고의 발생 유형을 살펴보면, '넘어짐'으로 인한 손상 사고가 31.5%로 가장 많았고, '떨어짐' 21.3%, '승용 농업기계 단독운전사고' 13.8% 순으로 나타났다.

손상 발생과 관련된 농업기계로는 경운기가 24.0%를 차지했고, 트랙터 16.2%, 관리기 15.2%, 예취기 10.1% 순으로 조사됐다. 경운기 사고 비율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손상 발생과 관련된 농기구는 사다리가 51.7%로 절반이



넘었고, 낫(14.2%)이 뒤를 이었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국가통계포털(kosis.kr)과 농업인 건강안전 정보센터(farmer.rda.go.kr)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농업인력의 급속한 고령화, 농작업 환경에서의 위험 요소 증가로 농업인의 업무상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지면서 더욱 효과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009년부터 농업인 업무상 손상과 질병을 조사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 조사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근거한 국가승인통계(제143003호)다. 짝수 연도에는 농업인의 업무상 질병, 홀수 연도에는 손상에 초점을 맞춰 진행한다.

농촌진흥청 안전재해예방공학과 이충근 과장은 "이번 손상조사와 지난해 질병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업인 맞춤형 예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연구개발과 예방 정책 지원에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기사제공: 친환경(4월 23일) 김경호 기자

기자 수첩

새로운 바람 기대되는 수소단체들

가스신문 한상원 기자

수소산업 성장세가 더더 업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협회를 포함한 관련 기관들은 따뜻한 봄이 오길 기대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H2KOREA는 김재홍 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신임 회장으로 취임시켰으며, 한국수소산업협회도 이어서 27일 효진이앤하이 장봉재 사장을 신임회장으로 추대했다.

두 기관 모두 지난해 내부적인 일로 인해 우여곡절을 겪어 수소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회원사의 우려 섞인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정기총회에서 발표된 협회의 지난해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운영비 감축 및 신사업 발굴 등 재정적자 해소와 회원사 간 네트워크 활성화 및 기존 회원사의 협회 활동 강화 등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는 협회의 본질적인 목표인 수소산업 육성과 회원사 가치·이익 증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뜻이다.

이러한 흐름은 소통과 협업의 부재라고 할 수 있다.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은 작은 시장에서 수많은 기업이 눈치를 보거나 소

극적인 움직임을 나타낸다면 산업 발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러므로 협회를 포함한 관련 기관

들은 실질적으로 기업들의 이익이 증진될만한 자리를 마련하고, 산·학·연의 협력을 유도해야 한다.

정부가 최근 에너지기술평가원을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고, 한국석유관리원도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수소경제 실현을 위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이에 맞게 기업들도 업계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와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협회는 올해 재정적 자립을 위한 수익 확대, 조직정비 및 운영 최적화, 협회 전문성 및 역량 강화, 회원사 지원 강화를 계획으로 세우고 새로운 회장도 선임한 만큼 업계와의 원활한 소통과 협업으로 본격적인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기대한다.



'밥상 물가' 타령에 무너질 위기의 '밥상'

농수축산신문 이두현 기자

이르면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중에 발표될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가 매우 기대된다. 지난해 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이 속대밭이 된 직후 상추를 시작으로 가을배추와 추석 전후 과일, 최근의 사과와 대파까지 여론은 농산물 가격이 비싸손도 못 대겠다며 연일 '금값 농산물'에 아우성치고 있다. 농산물 가격이 그리 비싸다고 하니 분명 지난해 농업인의 '농업소득'은 지난 30여 년간 1000만 원대 초반에서 벗어나지 못한 수준에서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이 돈이 된다는 것이 소문나면 청년층도 많이 몰릴 테고 농업·농촌의 고령화·소멸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꿈같은 이야기지만 농업 현장에서는 콧방귀를 킠다. 조생 양파 수확 현장에서 만난 농업인들은 농사를 그만두고 일용직 용역을 뛰는 것이 나올 것이라고 한탄했다. 지난해 9월 정식을 시작해 이달까지 여덟 달에 걸쳐 애써 양파를 재배했지만 생산비를 제하고 남는 것은 기껏해야 1000만 원이 될까 말까 한다는 것이다. 새벽이슬을 맞으며 밭에 나가고 차가운 밤공기를 마시며 귀가하는 등 자식을 키우는 마음으로 양파를 재배했지만 그 결과는 들인 품에 비해 형편없는 수준이다.

이러한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위정자들은 이들의 상황을 돌아보려는 커녕 오히려 농산물을 정쟁에 활용하는 데 여념이 없다. 연이은 기상재해로 열악해지는 농업 여건과 천정부지로 치솟는 생산비 부담에 날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농업인의 처지에는 큰 관심이 없어 보인다.

전남 고흥 금산면에서 만난 농업인은 자기가 올해 50살이 되는데 면내에서 자신보다 어린 농업인은 세 손가락 안에 든다고 전했다. 더불어 그날 수확 작업을 하던 내국인 중에선 71세인 자신의 노모가 가장 어리다고 했다. 이것이 우리 농업·농촌이 처한 현실이다. '소멸'이라는 단어가 막연한 것이 아닌 코앞까지 다가온 것이다.

이제는 말로만 농업인을 위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얘기할 때가 아니다. '밥상 물가'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밥상'을 지키기 위해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고 대응책을 내놔야 할 때이다.



식당, 장인정신만으로 될까?

식품외식경제 김준성 기자

어느 작은 설렁탕집을 찾았다. 그곳은 모녀가 함께 운영하는 49.5㎡(15평) 규모의 매장. 이른 새벽 식당에 나와 4~5시간 동안 국물을 우려내고, 건강에 좋은 천일염에, 직접 짠 참기름 등 어느 하나 흠잡을 데 없는 건강식당이였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안타깝게 느껴졌다. 모녀가 주말도 쉬지 않고 하루 종일, 그것도 최고의 식재료만을 사용해 정성을 다하고 있지만 월평균 매출 2000만 원 내외라고 했다. 식재료 비중이 45%에 임대료와 카드·배달 수수료를 빼고 나면 월 200~300만 원 정도 겨우 가져갈 수 있을까.

설렁탕집 대표는 장인정신을 강조했다. 제대로 된 음식을 내면 언젠가는 손님들도 알아줄 거라고. 그게 음식 만드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몫이라고. 그래.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과연 그렇게, 모든 음식 하나하나에 100% 힘을 쏟아야만 하는 걸까. 그러다 지치고 병들면 어느 손님이 그 장인정신을 기억해 줄까. 조금은 영리하게, 에너지도 분배하며 오래갈 수 있어야만 음식도 장인정신도 천천히 알려지는 게 아닐까.

안타까운 마음에 당시 난 "요즘 면제

품 좋은 게 많으니 조리 과정 쉬운 면 요리도 한 두가지 준비해서서 수육과 세트 메뉴로 구성하면 매출 상승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며 "몸도 좀 보살피면서 하세요"라는 애송이 같은 조언 몇 마디를 놓아두고 왔었다.

야구 경기는 9회까지 이어진다. 매회 모든 공을 100% 힘으로 던지면 9회까지 절대 던질 수 없다. 힘이 빠지는 순간 홈런 몇 개 맞고 교체될 수밖에. 반면, 몇 번 안타를 맞고 2~3점 줄지언정 힘 조절을 영리하게 해 혼자 9회까지 안정적으로 경기를 책임질 때 그 투수와 경기는 팬들 기억 속에 오래 남아 비로소 '레전드'로 불리게 된다.

외식업 대표들에게 요즘은 '어렵다, 힘들다'의 결정판 같은 나날이다. 이럴 때 일수록 '가볍게·영리하게·길게'의 힘 배분이 필요하다. 장인정신도 레전드도 그 다음 문제다.



경제부총리의 사과농가 방문

원예산업신문 조형익 기자

사과가격이 폭등하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1일) 대구 군위 한 사과농가를 방문했다.

모두가 알다시피 요즘 사과가격은 '금사과'라고 불릴 정도로 오르면서 전 국민의 관심 대상이 됐다.

다행이 올해는 꽃눈 상태가 지난해보다 나은 편으로 평년 수준을 보이고 있다. 꽃이 피는 시기는 보름 정도 지나면 개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 부총리가 방문한 사과농가는 "지난해에는 평년보다 1주일 정도 일찍 꽃이 피는 바람에 냉해 피해가 심했다"며 "사과 농사를 25년 지으면서 지난해 같은 때는 처음이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군위를 비롯한 경북지역의 사과주산지는 봄철 이상기온으로 인한 결실불량 등을 겪으며 농가 피해는 물론 여름철 폭우 및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탄저병마저 돌면서 사과생산량이 평년 대비 43% 감소했다.

사과 주산지의 농작물 생육상태가 결국에는 시장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다.

한 때 사과와 과잉 생산돼 폐기 처분

했을 정도였는데 격세지감을 느낄 정도가 됐다.

이는 이상기온 등 기후변화가 일상화되면서 언제 어느 때고 나타날 수 있는 일로 걱정이 앞서는 것은 왜일까.

이상기온 등 농업 환경의 변화 추세에 맞게 품종 및 다양한 기술이 보급돼야 대응력을 키울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농약·농자재·인건비 등이 상승은 고스란히 생산원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길이 있었으면 한다.

최 부총리가 말한 기후변화에 대비한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생산성이 크게 향상된 스마트 과수원 확대 및 미래 재배 적지를 중심으로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의 양성이 절실히 보인다. 아울러 농가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술 및 품종이 사과과원에 보급됐으면 한다.



[약업신문 창간 70주년]

종근당 이장한 회장-한국제약바이오협회 원희목 고문 제59회 동암약의상 공동 수상

약업신문 70주년 기념식도 함께 거행

종근당 이장한 회장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원희목 고문이 제59회 '동암약의상'을 공동 수상했다.

동암약의상 심사위원회(위원장 심창구)는 지난 3월 27일 콘래드서울 호텔에서 약업신문 창간 70주년 기념식 및 제59회 '동암약의상'(東巖 藥의賞) 수상식을 개최하고 수상자인 이장한 회장과 원희목 고문에게 상패와 상금 1000만원을 수여했다.

이날 약업신문 합태원 대표이사는 "약업신문이 70주년을 맞이했지만 오늘 이자리는 여기 모인 제약사, 단체 등 의약계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라며 "지난 70년의 성과와 업적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달려갈 30년, 또 100년의 비전이 중요하기에 다시 한 번 업계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노연홍 회장은 축사에서 "수상자인 이장한 회장은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선두주자로서, 매년 큰 비중의 R&D 투자로 블록버스터급 혁신신약 개발에 매진해왔다"며 "이 같은 노력의 결실로 지난해 1조7000

억원대 기술수출 쾌거를 거뒀으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연구개발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원희목 고문 역시 약사회 뿐 아니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전임 회장으로서 산업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며 "특히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제약산업이 국민산업이라는 키메세지를 각인시킬 수 있도록 회원과 품질혁신, 신약개발 생태계 조성, 윤리경영 확립 등에 앞장서 왔다"고 덧붙였다.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은 "오늘 수상자 두 분은 우리나라 제약계 및 약사사회, 그리고 약업 발전을 함께 이끌어 왔다"며 "꽃들이 세상을 뒤덮는 이런 아름다운 시기에 시상식을 개최할 수 있어 더욱 기쁜 것 같다"고 전했다.

동암 약의상 심사위원회 심창구 위원장은 심사결과 보고에서 "심사 결과를 말해야 하는데, 이처럼 결과를 전혀 설명할 필요가 없는 수상자는 처음"이라며 "상이 수상자를 빛나게 하지 않고 수상자가 상을 빛나게 한다고 생각하기에 이처럼 훌륭한 수상자들에게 약의상을



수여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경과보고를 끝맺었다.

원 고문은 "주로 상을 드리거나 축하하는 역할을 하다 이렇게 상을 받으니 너무 기분이 좋다"며 "존경하는 이장한 회장과 같이 수상해 더욱 의미가 깊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이장한 회장은 "50~60년대 학교를 오가며 한자로 된 약업신문사 간판을 본 기억이 생생하다"면서 "업계 영향력이 큰 약업신문사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임직원들과 함께 신약개발

등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약업신문 70주년을 기념해 업계 동반자이자 조력자로 함께해온 지난 70년을 돌아보는 기념영상을 상영했으며, 합태원 대표이사가 약업신문의 향후 30년 전망 및 트렌드 비전 등을 발표하기도 했다.

동암 약의상은 약업신문 창업주인 故 함승기 회장의 아호를 따 지난 1961년 제정해 정부가 주관한 '약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해 오다 1975년 약의 날이 폐지됨에 따라 1977년 제16회 시상식부터 약업신문에서 시상해오고 있다.

[창간특집 | 약업신문과 대한민국 약업계]

약업신문의 70년 역사는 한국약업사의 기록입니다

약업신문의 창간 이후 현재까지의 족적

약업신문은 오늘로서 창간 70주년을 맞았습니다. 약업신문은 창간호가 발행된 1954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지난 70년을 전문언론의 사명과 본령과 지켜오는데 최선을 다해왔으며 이와 더불어 대한민국 약업계의 동반자이자 조력자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해 온 바 있습니다. 창간 70주년을 맞은 약업신문은 이제 단순 전문언론매체로서의 역할을 뛰어넘어 국민건강과 보건의료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헬스케어그룹으로서의 사명과 기능에 충실할 것입니다. 빅데이터 및 AI 솔루션을 활용한 미래가치 콘텐츠를 개발하고 정보산업의 무궁한 잠재적 가치를 기반으로 보건의료산업 발전에 일익을 담당함은 물론 지속경영을 통한 100년기업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합니다.

1954년 3월 29일 약업신문 창간=한국전쟁이 끝난후 정부는 1953년 약사법(藥事法)을 제정하였고 제약업계와 의약품 유통업계는 전란의 아픈 상처를 씻어내고 폐허 속에서 약업을 재건하는 데 분망하던 상황에서 약업신문의 전신인 약사시보(藥事時報)가 1954년 3월 29일 창간되었습니다. 타블로이드판 4면 주1회 발행된 약사시보는 사실상 우리나라 전문언론사상 가장 오랜 연륜과 전통을 자랑하는 본격적인 의약전문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후 약사시보는 1960년 '약업신문(藥業新聞)'으로 제호를 변경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동암약의상 제정=약업신문은 사회공헌, 문화사업, 산업진흥을 위한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약업계의 노벨상'으로 일컬어지는 '동암 藥의賞'을 1961년 제정하여 약학, 제약, 공직 개국, 유통 등 약업계 전 분야에 걸쳐 공이 많은 유공자를 발굴, 시상해 오고 있는데 지난 2022년

제58회 때까지 총 223명의 수상자를 배출한 바 있습니다.

10년 단위 대형기획 출판물 발간=약업신문은 한국 전문언론사상 최초의 지령5천호(2007년2월) 돌파를 기념해 100면에 달하는 특별기획특집을 발행한 바 있습니다. 이후 10년 단위의 특별기획을 통해 신약개발심포지엄(1994년), 제약기술거래심포지엄(2004년), 국제신약개발심포지엄(2014년)을 개최하고 기념사업으로 △한국약업사(1972년/한국약업사 대하기획) △수입의약품총람(1984년/창간30주년) △한국약업100년 (2004년/창간50주년) △한국 제약100년 (2014년/창간60주년) 등 한국약업계의 기념비적인 대형 출판물을 연속으로 출간한 바 있습니다.

학술잡지 월간 의약정보 창간=약업신문은 자매지로 1975년 9월 개국약사를 위한 전문잡지 월간 의약정보를 창간하여 약사 학술지식 증진과 약국경영 개선에 큰 도움을 주고 있으며 창간 이후 지금까지 단 한번의 결호도 없이 발행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의약정보는 문화관광부 선정 우수콘텐츠상(우수잡지) 올해를 포함 총 5회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의약정보는 질향별 기획특집을 주요 테마로 진단과치료, 약물작용원리, 임상현장 핫이슈, 약품정보 등 주요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장품신문 창간=약업신문은 1992년 9월 화장품법이 발효됨과 동시에 약업신문의 섹션으로 발행되고 있던 장업판을 확대, 개편하여 화장품신문을 창간했습니다. 화장품신문은 창간과 동시에 화장품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담당했으며 당시 2만여개가 넘는 화장품전문점이 성업하게 하는 등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인쇄전문회사 YSP설립과 파주공장 준공=

약업신문은 2004년 4월 파주출판단지에 대지 500평, 건평 700평 부지에 4색 옵셋기 4대 고속 운전기를 운영할 수 있는 인쇄전문 공장을 건립하였습니다. 이로써 앞서 설립된 YSP를 통해 최신시설을 갖춘 신문 및 인쇄출판 업무의 전문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곳을 통해 약사연감(1976년) 파마시인코리아(1977년) 의료보험약가책자(1993년) 한국제약기업총람(2016년) 등을 해마다 정기적으로 발간하여 보건의료계와 제약산업계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 글로벌 트렌드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약업닷컴(YAKUP.COM) 개통, 온 오프라인 병행=전신과 온라인을 통한 정보제공을 시도한 약업신문은 초창기 정보통신망 운용(1996년 하이텔,1998년 천리안)을 통해,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전달한 바 있으며 인터넷매체 약업닷컴(WWW.YAKUP.COM)을 1999년말 오픈한 바 있습니다. 약업신문은 취재와 보도라는 언론의 본령을 준수하는 한편 2002년 3월 전문언론 최초로 발행부수 및 유료부수 예비공사(ABC공사)를 실시해 분사 및 전국 16개 지사(보급소) 공사 완료(약업신문 발행부수 23,154, 유가부수 15,809, 화장품신문 발행부수 31,208) 인증받기도 했습니다.

뉴스콘텐츠 통합 및 DB구축 활용=약업신문은 2023년 전문언론 최초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콘텐츠 디지털화 지원사업 대상매체로 선정되어 창간호부터 약 8년간(1962년) 발행된 신문지면의 스캔, 사진 이미지보정 및 PDF변환, 본문 텍스트 검색 등 1차 디지털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자체예산으로 1990년부터 1999년까지의 지면스캔과 이미지가일화 작업을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약업신문 디지털 뉴스 콘텐츠는 향후 DB화를 위한 통합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약업



신문 자료DB는 지난 70년간 기사 및 이미지(사진)에 대한 간편 검색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약국경영대상 등 약업문화창달 위한 다양한 행사=약업신문이 주최하는 약국레이아웃 콘테스트는 지난 1974년 시작된 이래 2007년 '약국경영대상'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2023년 제49회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약업인산업시찰단(1966년) △의약업인 바둑대회(1968년) △약업인친선 등반대회(1969년) △약업인친선 축구대회(1974년/1979년부터 야구대회로 변경) △의약업인 사진촬영대회(1975년) 등을 주최한 바 있습니다.

정부 훈장 포장 수훈=전문언론매체로서 기능을 충실히 해 온 약업신문에 대한 평가는 1967년 12월 문화공보부 장관 표창(지령1천호 돌파)을 시작으로 △1982년 4월 보건의날 국민훈장 목련장 △1996년 △2000년 10월 문화훈장 보관장 △2002년 10월 문화훈장 보관장 △2006년 10월 보관문화훈장 등 수 회에 걸친 정부 기관의 훈포장 수훈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병원신문 창간 38주년 발행인 기념사]

“국민건강 증진·회원병원 권익 향상에 앞장”



윤동섭 발행인

병원신문이 창간 38주년을 맞이했습니다. 1986년 4월 ‘병원회보’로 창간하여 ‘병원신보’를 거쳐 현재의 ‘병원신문’으로 제호를 변경하며 매주 발행하고 있습니다.

2004년 9월에는 인터넷 신문도 운영하면서 시대 변화에 맞춰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보건의료계 대표 전문지 매체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병원신문은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올바른 정책 제언과 회원병원들의 소식을 공유하고 전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신속하고 공정성을 잃지 않는 보도에 더욱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며 초연결시대로의 대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분야도 로봇기술의 빠른 도입과 스마트병원 가속화 등 패러다임의 변화가 체감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영역을 대체하며 영역을 확대해가는 의료시스템의 변화

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미래 의료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병원신문은 정론직필(正論直筆)의 자세로 국민 건강과 회원병원의 경영 합리화에 앞장설 것입니다.

또한 독자들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며 초심을 지켜나가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38년간 큰 사랑을 받아오면서 지속되고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에서 비롯되고 있으므로 언론의 순기능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도전과 변화에도 올곧게 신문발행과 보도가 가능하도록 몰심양면으로 도움을

주고 계신 이화성 편집인과 고도일 주간의 노고에도 지면을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많지 않은 인력과 예산으로 최소한의 기자 인력으로 대한민국 의료계의 실상을 최대한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미디어국 병원신문 기자분들의 노고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제42대 회장을 선출했습니다. 신임 회장의 리더십과 함께 더욱 발전하는 병원신문이 되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병원신문을 사랑해 주시는 모든 애독자 및 병원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한층 더 도약해 나가도록 오늘도 안주하지 않고 혁신을 선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간특집 | 병원경영 생존전략-박개성 엘리오컴퍼니 대표이사]

의료대란 이후의 병원경영

의료대란, 종합병원 전문병원에 기회지만 잘 준비된 곳에만 국한
경영자는 수가정책 변화 잘 살피 향후 예측 및 미래계획 수립 필요



박개성 대표이사

의사 구인대란의 시대로 진입 중

지금 전국적으로 의사는 부족하다. 환자가 없는 오지가 아니라 부산, 대구를 비롯하여 창원, 울산, 강릉 등 지역 대도시의 중소병원은 물론 대

학병원도 의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의사구인 사이트에 가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개원가 봉직의 연봉은 진료과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상당수의 진료과는 대학병원 교수의 평균연봉보다 2배 이상이며 인센티브는 별도이다. 지역 대도시의 대학병원들도 병상 대비 10~20%에 이르는 교수를 채용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최근 들어 봉직의 연봉이 가파른 상승추세에 있다는 사실이다. 문케어의 보장성 강화정책과 실손보험이 결합되어 개원가의 경영환경이 상당히 좋아졌다. 개원가는 급증했고 코로나19로 인해 유보했던 의사들의 이직이 본격화되었다.

중소병원에 이어 대학병원도 의사 구인난이 험겨운 일상이 되었다. 게다가 향후 10년 동안 국가고시 합격률을 감안하면 3만 명의 의사가 배출되지도 않는데, 3만 명 이상의 의사가 70세를 넘어선다.

사실상 의사의 충원은 없는 셈이다. 빨라야 11년 후나 효과가 날 의대정원의 정책이 어떻게 결말이 나든 의료대란이 언제 끝나는 의사 구인난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입장에 따라 상황을 달리 해석할 수 있지만, 경영자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식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보면 의대정원의 증원정책은 대학병원에 유리하고 개원가에 불리한 것인데, 전공의 사직으로 인해 대학병원이 오히려 직격탄을 맞고 개원가는 유리한 상황이 되었다.

의료대란은 특히 전공의가 많았던 대학병원에 초유의 시련이자 도전이다. 앞으로 한 달 내에 해결돼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이고, 회복에도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전공의들이 모두 돌아오지도 않을 뿐 아니

라 환자수의 회복도 빨리 되지 않을 것이다. 시스템의 균열이 생겼고, 환자의 신뢰가 떨어지고 적자가 누적되었다.

이를 회복하는 기간 동안 계획했던 투자를 유보하거나 철회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의료대란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영향은 가늠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클 것이다.

시장가격을 인정하는 보상체계 구축해야

대학병원은 올해 들어 적자가 급격하게 누적되고 있다. 전공의가 없다고 수술방을 줄이고, 입원과 외래를 줄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병원장은 경영자다.

지금 욕을 먹어도 병원의 내일, 내년을 생각해야 한다. 누구를 붙잡고 사정을 하든 일시적인 지원금을 주든 추가채용을 하든 환자수를 회복하고 적자규모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

전공의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PA시스템을 조기에 정착시키는 등 드러난 진료시스템의 문제점들을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

이런 노력과 동시에 의사쟁탈전을 위한 보상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보상체계를 개선할 때는 과거보다 얼마 더 높아졌다는 관점보다는 진료과의 성과와 시장가격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먼저 집토끼를 잡으려면 과격적인 성과급을 통해 급여의 전반적 수준을 높이고, 우수의사의 연봉은 진료과별 개원가의 수준을 넘어서게 해야 한다.

하지만 성과급의 개선만으로 고성과의 젊은 의사를 유지하거나 채용하기는 쉽지 않다. 입장에 전념하되 경쟁력 있는 보상을 제공하는 연봉제 형태의 매력적인 임상트랙교수제를 도입해야 한다.

만약 이때 성과급을 개선하여 급여를 적정수준으로 높여놓지 않으면 연봉제가 적용되는 교수와 기존 교수와의 갈등이 심해지고, 고성과 교수의 이탈은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임상트랙교수제가 자리를 잡으면, 기존교수 중에 전환을 원하는 사람이 늘어나게 된다. 장기적으로 연구를 잘하고 좋아하는 교수는 연구



에 더 전념하게 되고 대부분은 임상에 전념하는 선진형 트랙시스템으로 진화하게 될 것이다.

재원(財源)이 없는데, 성과급이나 연봉제를 어떻게 도입하며 반문할 수 있다. 의료대란으로 인해 대학병원의 재정은 악화되어 성과급 재원을 늘리거나 연봉제로 인한 교수를 증원하는 것도 부담스러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성과와 연동하여 재원이 늘도록 설계하면 의사당 진료수익도 증가시킬 수 있고, 성과와 연동되지 않은 호봉제 보수체계를 혁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 연봉제 교수는 실적이 높은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채용 또는 전환을 추진하면 된다.

의료대란 이후를 준비하라

대학병원에서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늘어난 적자를 메우고 향후 의료진 인센티브나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는 큰 이견이 없을 것이다.

구성원의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될 때가 병원의 고질적인 문제를 풀 수 있는 적기이다. 이럴 때 구성원의 이견이나 반대 때문에 수행하지 못했던 과제들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전문화 전략에 따라 의료진 구성을 새롭게 하고, 진료패턴을 적정화하고, 환자의 대기시간을 줄이고, 편의사업의 수익을 높여야 한다. 이와 아울러 구매방식의 전환, 인력의 재배치, 계약방식의 개선 등을 통해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

의대정원의 증원정책이 장기화되면서 그동안 가라앉아 있던 의료계의 해묵은 숙제들이 수면위로 떠오르게 되었다. 의료전달체계, 중증질환

수가, 진료과별 인력수급, 실손 보험, 비대면 진료, 전공의 교육과 의대교육방식, 임상지원간호사제, 지역간 역할분담 등이다. 이 많은 과제들은 하나하나 이해관계가 다르고 서로 연계되어 있어 풀기 쉬운 과제가 거의 없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의료시스템을 자랑해왔지만, 너무 오랜 동안 인기영합식 정책과 땀질식 처방이 난무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모두의 노후건강을 챙겨줄 미래형 의료시스템을 갖기 위해선 과감하게 대수선을 해야 할 때다.

이번에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와 오류가 노정되었지만, 큰 수업료를 지불한 대신 국민들의 관심을 촉발하는 계기도 되었다.

총선 후 정책지형이 바뀌었고, 의대정원의 이슈가 일단락되어도 정부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수가체계의 개편, 개원가 수익의 적정화, 지역간 역할조정 등 다양한 의료정책을 쏟아낼 가능성이 많다.

경영자는 정부가 미워도 정책변화를 적절하게 활용해야 한다. 특히 증증질환과 필수의료와 관련된 수가정책의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 수가기획과 진료패턴 적정화, 전문화 전략 그리고 성과급 등에 반영해야 한다. 정책지원금과 수가개편 등 정부정책으로 인한 효과는 상당부분이 이익에 직결되어 병원의 수익성 개선에 큰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병원의 경영진은 혼란스러운 상황일수록 개인적인 감정소모를 최소화하고 냉정함을 유지해야 한다. 향후 정책이 내가 운영하는 병원에 줄 영향을 예측하여 당장 해야 할 일에 집중하고, 미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획 주간전문신문 Focus In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여소야대’ 정국 이어가...각 산업별 4·10총선을 살펴보다

4·10총선의 막이 내렸다. 투표 결과 거대야당이 탄생하며 여소야대 정국이 계속 이어지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최종 투표율이 67.0%로 집계됐다. 여기에는 4월 5~6일 실시된 사전투표와 거소·선상·재외투표가 포함됐다. 전체 유권자 4428만 11명 중 2966만 2313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번 투표율은 직전인 제21대 총선 투표율인 66.2%보다 0.8% 포인트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또한 제14대 총선(71.9%) 이후 32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70%의 벽을 넘지는 못했다.

총 300석(지역구 254석, 비례대표 46석)의 자리를 두고 펼쳐진 선거의 결과는 야당의 압도적 승리로 마무리됐다. 정당별 의석수는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161석, 국민의힘 90석, 국민의미래 18석, 더불어민주당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선거를 마무리하며 이 상황을 전문신문 매체들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봤는지 정리해봤다.

/ 정리 이진숙 기자 kosna1964@naver.com



■ 간호사신문

간호사 출신 국회의원 2명 당선... 지역구 첫 배출 및 비례대표 1명

간호사신문(발행인 탁영란)은 지난 4월 11일 기사를 통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보도했다.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4월 10일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간호사 2명이 당선됐다.

이수진 후보(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가 경기 성남시중원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돼 재선에 성공했으며, 간호사 출신 최초로 지역구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이 됐다.

전종덕 후보(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가 더불어민주당연합 비례대표 11번으로 공천받아 당선됐다.

이번 선거에서 간호사 후보는 지역구 2명과 비례대표 6명 모두 8명이 출마했다. 그동안 간호사 국회의원은 9명이 배출된 바 있으며, 이번 당선인을 포함해 11명으로 늘었다.

■ 국제신문

제22대 총선, 세무사 자격 소지자 임광현 전 국세청 차장이 ‘유일’

국제신문(발행인 이한구)은 지난 4월 12일 기사를 통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보도했다.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세무사 출신 1명과 공인회계사 출신 4명이 당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조인 출신은 모두 61명으로 직전 선거였던 제21대 총선에서의 46명 보다 15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법조인 출신이 대거 국회 입성에 성공하자 최근 직역 간 업역을 둘러싼 갈등이 예민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자격사 업계의 총선결과 분석이 다양해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당선인 명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당선인은 임광현 전 국세청 차장(더불어민주당연합 비례대표)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고 있는 당선인은 유동수·박찬대(더불어민주당), 조정훈·최은석(국민의힘) 당선인 등 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법조인 출신은 이번 총선 모두 61명이 당선돼 대거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37명, 국민의힘·국민의미래 20명, 조국혁신당 3명, 개혁신당 1명 등이다.

■ 내외뉴스통신

수도권·충청·전라, 민주당 ‘압승’... 국힘, 강원·경상권 ‘선전’

내외뉴스통신(발행인 김광택)은 지난 4월 11일 기사를 통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보도했다.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 10일 치러진 총선 격전지에서 여야의 희비가 엇갈렸다. 지난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전 9시 38분 개표 99.88퍼센트 완료된 시점 기준으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격전지에서는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부산·경남 등 영남권 격전지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승리했다.

정치적 부동층이 밀집해 전국 선거의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서울·인천·경기 수도권인만큼 양당은 총력전을 펼쳤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3월 28일~4월 9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접전지를 각각 80여 차례, 40여 차례 방문했다.

한 위원장이 이 대표에 비해 두배를 방문하고 부동산·지역 개발 공약 등을 발표하며 공을 들였으나 결과는 수도권은 민주당의 압승이었다. 정권심판론의 벽을 넘지는 못했다는 분석이다.

■ 농업인신문

“대중 속 농업은 사라졌다”... ‘농민권’ 여의도 진입, ‘머나먼 얘기’

농업인신문(발행인 노만호)은 지난 4월 12일 기사를 통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보도했다.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민 권리를 반영하기 위한 제도권 진입이 또 다시 좌절됐다. 여권 참패로 귀결되는 이번 4·10 총선 결과, 현 정부의 양곡관리법 개정 논란에서 시작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정치에 일침이 가해졌다. 하지만 농업분야 현안은 총선에선 무의미하게 내쳐졌다. 여야 거대 정당들은 이번 선거에 농업계를 정치적 동반 대상으로 고려하지도 않았고, 배려도 없었다. 실제 여야 정당들은 지역구 배정이나 비례대표 순번 결정 등에서 농민 몫을 아예 생각하거나 ‘뒷전’으로 미뤘다.

후보자 직업란에 ‘농민’으로 기재해 비례대표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연합 임미애 당선인은 이미 2006년부터 민주당소속 의성군의원으로서 활동했고, 얼마 전 경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정통 정당인이다. 당내 ‘지역·균형발전 분야’ 경선을 통해 비례대표로 낙점됐다. 농민 몫의 순번 배정이 아니다.

군소정당 소속으로 지역구 선거에 뛰어난 농민 출신 후보자들은 양 정당 독식 구조의 선거 판에서 대중적 연결고리를 찾는 데 한계를 경험하고 고배를 들었다.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농민대표’ 내지 ‘농업전문가로 간판걸고 선거에 나선 후보자는 전패했다.

■ 농촌여성신문

국회 농해수위 생존율 61%... 공천 시 100% 당선

농촌여성신문(발행인 강현옥)은 지난 4월 11일 기사를 통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보도했다.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22대 총선이 국민의힘 참패로 결론이 난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11명이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제외하면 생존율은 약 61%로, 특히 공천을 받아 선거에 나선 여야 의원 모두 승리한 점이 특징이다. 지역구가 농어촌 또는 양당 지지가 확실한 영·호남을 둔 의원이 대부분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국민의힘 소속 7명 중 불출마 또는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이달곤·안병길·홍문표·최춘식 의원을 제외한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이상수 의원(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당선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11명 의원 중 농해수위원장 소병훈 의원은 경기 광주갑에서 56.33%, 간사 어기구 의원은 충남 당진에서 51.78%로 신승하며 나란히 3선 의원이 됐다.

22대 국회 개원 후 삼임위원회 이동이 변수지만 현재 농해수위원회는 여야 포함 3선 이상만 7명이나 됨에 따라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예상된다.

■ 시사신문

조국 “원내교섭단체, 연말까지도 가능... 사람 꺾이는 방식 아냐”

시사신문(발행인 박상민)은 지난 4월 17일 기사를 통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대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발언을 정리했다.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7일 원내교섭단체 구성 시점과 관련해 “22대 국회 개원 전 구성이 가장 좋지만 개원 후, 연말까지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교섭단체 구성 의지는 확고하지만 만만치 않

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조국혁신당에선 당선인 워크숍을 통해서도 교섭단체 구성 의지를 드러낸 바 있으며 구체적인 추진 일정이나 방식은 조 대표에 맡기기로 한 것으로 밝혔던 데다 조 대표도 당선인 워크숍을 마친 뒤 “서두르지 않고 민심을 받아들여 원내교섭단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이 같은 입장을 분명하게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4·10총선에서 비례대표로 12명이 당선된 조국혁신당이 원내교섭단체가 되려면 8명의 국회의원이 더 필요해 3석의 진보당과 1석의 새로운미래는 물론 더불어민주당연합을 통해 당선된 기본소득당 1명과 사회민주당 1명 뿐 아니라 시민사회 몫 비례대표 2명까지 모두 끌어들이야만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어느 쪽에서도 조국혁신당과의 교섭단체 구성 가능성에 선을 긋는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있어 성사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시정신문

제22대 국회, 더욱 성숙한 자세로 민생을 보듬어야

시정신문(발행인 주동단)은 지난 4월 18일 기사를 통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보도했다.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총선에서 지역구 161석에 비례위성정당 14석을 합쳐 175석을 차지하며 4년 전 21대 총선에서의 180석엔 다소 못 미친다지만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 의석까지 합쳐 189석을 확보해 당시의 190석과 별 차이가 없다.

지난 4년에 이어 향후 4년도 개헌과 대통령 독자 탄핵을 빼고는 마음만 먹으면 국회에서 각종 법안을 단독으로 밀어붙일 수 있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법관,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도 있는 등 못할 일이 없는 거대 입법 권력을 이어 가게 됐다.

그러한 만큼 야권 또한 22대 국회에서도 21대 국회에서 목도한 장면처럼 국정 발목을 잡고 방탄을 위한 입법 독주나 일삼는 일을 재연한다면 이번엔 여당에 대한 총선의 회초리가 아니라 야당에 대한 질풍노도(疾風怒濤)와도 같은 거센 민심의 역풍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야당인 민주당은 막강한 국회권력을 쥔만큼 국정 동반책임의 중압감을 갖고 의회를 생산적으로 만들 의무가 있다. 어떠한 경우라도 책임이 따르지 않는 권한은 없는 법이란 사실을 직시했으면 싶다.

■ 의학신문

尹 대통령 “의료개혁 계속 추진, 합리적 의견 쟁길 것”

의학신문(발행인 박연준)은 지난 4월 16일 기사를 통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이후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정리했다.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이 총선을 통해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제17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취임 이후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 했다. 올바른 국정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이 체감할 만큼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모자랐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그간 추진해온 역점 정책에 대해서는 추진을 계속하되, 합리적 의견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정책 추진에 대한 방향을 유지하면서도 여소야대 형국에서의 운영될 국회와 민심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 의학신문

총선 여권 참패, 의대 정원 2000명 변화 가져올까?

의학신문(발행인 이필수)은 지난 4월 12일 기사를 통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 바라보는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의견을 보도했다.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상 최대 격차의 여소야대 결과가 나오면서 총선 이후 의료계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안에 대한 여러 전망이 제기됐다.

특히 의대정원 증원 규모와 관련해 2000명을 고수해온 정부가 총선 전 의료계와 대화하는 모양새를 보였다면, 이제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고수해 밀어붙일 수 있다는 것.

여당 관계자는 “선거에서 여권이 패배했다더라도 이를 계기로 대통령실과 정부에서 의대정원 증원 정책과 관련해 발을 빼기는 늦은 것으로 보인다”며 “소통하기보다 기존의 정책 방향성을 더욱 굳건히 가져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총선 결과의 책임을 의료계 쪽으로 돌릴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회 야당 관계자는 “총선 이후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의 입장이 다를 것”이라며 “대통령실은 이번 총선의 책임을 의료계에 돌려 화풀이 아닌 화풀이를 하려고 할 것이고, 보건복지부는 의정 갈등을 수습하려는 모양새를 보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2000명 규모를 고수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SNS를 통해 “(이번 선거는)의사집단을 건폭 등 경경불법노조 다루듯 한 용산과 수수방관한 국민의힘이 자초한 결과”라며 “기초부터 튼튼한 새집을 짓는다는 각오로 다시 시작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이뉴스투데이

더 세진 범야권...尹 정부 ‘경제정책’ 발목 잡히나

이뉴스투데이(발행인 방재홍)는 지난 4월 11일 기사를 통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 바라

보는 경제정책에 대해 보도했다.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4·10총선의 범야권 압승에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특히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각종 감세 정책이 ‘거야(巨野)의 장벽’에 무산될 수 있어서다.

10일 실시된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전체 300석 가운데 161석을 획득했다. 민주당 중심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연합 의석까지 합치면 175석에 달한다.

지난 2년 ‘여소야대’ 정국에서 의제 달성을 위해 고군분투했던 윤 정부는 남은 3년 임기도 순탄치 않게 됐다.

당장 어려움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다. 중장기 과제로 추진 중인 상속세 개편도 마찬가지다. 금투세 등 각종 밸류업 감세 정책이 좌초 위기에 놓이자 개인투자자들은 나선운동까지 언급하며 22대 국회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 투자자는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되면 한국 증시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며 “나선운동도 불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투자자는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밸류업 정책의 발목을 잡는다면 천만 투자자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주간신문 CMN

“미용인·소상공인 현장 목소리 국회에 전달할 터”

주간신문 CMN(발행인 조병호)은 지난 4월 13일 기사를 통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보도했다.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연합 비례대표 후보로 나선 오세희 전 소상공인연합회장의 당선이 확정됐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오세희 전 회장의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6.5%의 정당 득표율로 서미화·위성락·백승아·임광현·정혜경·용혜인·오세희·박홍배·강유정·한창민·전종덕·김윤·임미애·정영호 후보 등 14명이 국회의원 백지를 달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오 전 회장을 ‘소상공인의 희망을 이끌어갈 리더’로 소개했으며,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소상공인 전문은행은 소상공인 대출과 채무문제 등 금융과 관련한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오 전 회장은 CMN과 통화에서 “당신이 돼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미용업계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의 산적해 있는 현안과 현장의 목소리를 국회에 잘 전달해야 한다는 생각에 어깨가 무겁다”고 소감을 밝혔다.

■ 중소기업뉴스

“22대 국회, 中企 활성화에 초당적 협치 바란다”

중소기업뉴스(발행인 김기문)는 지난 4월 15일 기사를 통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보도했다.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2대 총선이 마무리됐다. 최종 개표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161석, 비례대표 14석에 당선되며 175석을 확보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역구 90석, 비례대표 18석으로 총 108석에 머물렀다.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1당을 차지하고 범야권 계열 정당이 300석 가운데 191석을 가져가며 ‘여소야대’ 지형은 22대 국회에서도 이어지게 됐다.

‘여소야대’ 지형은 중소기업 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요금의 ‘납품대금 연동제’ 포함은 양당 모두 ‘중소기업 제값 받기’를 위해 필요성을 인정하고 공약에 반영한



만큼 속도감 있는 진행이 기대된다.

반면 연초부터 전국 중소기업인들이 유예를 호소해왔던 ‘중대재해처벌법’은 야권이 압도적인 의석수를 가져감에 따라 더욱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총선 결과 발표 후, 경제계는 규제개혁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입을 모았다. 21대 국회에서 반복됐던 정쟁과 갈등을 넘어 민생문제 만큼은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한 것이다.

중소기업계 역시 국민의 선택을 받은 당선자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건내며, 정치가 경제를 밀어주는 친기업적 입법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 코리아쉬핑가제트

22대 총선서 해양계 출신 조승환·박성훈·정일영 당선

코리아쉬핑가제트(발행인 이우근)는 지난 4월 22일 기사를 통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보도했다.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해양계 출신 3명이 당선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조승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박성훈 전 해양수산부 차관, 정일영 현 국회의원이 10일 치러진 총선에서 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조승환 전 장관은 부산 중구영도구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나와 4만6254표(54.82%)를 득표해 더불어민주당 박영미 후보를 9515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조 당선자가 해수부 장관일 때 차관직을 수행한 박성훈 당선자는 부산 북구을에 출마해 4만4886표(52.56%)를 얻어 민주당 정명희 후보를 4437표 차로 이겼다. 부산 북구을은 북·강서에서 분리돼 새롭게 만들어진 선거구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재선에 성공했다. 정 당선자는 인천 연수구에서 5만6667표(51.5%)를 얻어 국민의힘 김기흥 후보를 3313표 차로 따돌렸다.

반면 충남 아산시갑에서 출마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3만4555표(44.09%)에 그치며 민주당 복기왕 후보에 7598표 차로 패했다. 또 해양수산부에서 사무관으로 근무한 바 있는 현경병 후보는 서울 노원구갑에서 민주당 우원식 후보와 맞붙었지만 2만8062표(17.99%) 차이로 지며 재선에 실패했다.

■ 한국교육신문

“교권·공교육 회복” 교육계 당선인 이구동성

한국교육신문(발행인 여난실)은 지난 4월 11일 기사를 통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보도했다.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 10일 치러진 22대 국회의원 총선 결과 여소야대 형국이 재현된 가운데 각 당의 교육

계 대표 후보들도 당선돼 원내 활약이 기대되고 있다.

73년 만에 최초로 초등 교사 출신 한국교회총회장에 당선됐던 정성국 국민의힘 부산 부산진갑 후보는 11일 새벽 종료된 개표 결과 52.8%를 득표해 서은숙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정 당선인은 “헌법적 가치에 따라 학생 개개인이 따뜻한 인성과 자유민주적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토대를 만드는 데 앞장 서겠다”며 “교권 5법 완수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조항 등 학교 현장에서 불편을 겪는 법과 제도 개선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출마한 백승아 전 교사노조연맹 사무처장도 무난히 당선됐다. 백 당선인은 그동안 무너지는 공교육을 회복하고 고소, 고발로 얼룩진 학교 현장을 바로 세우겠다는 포부를 밝혀왔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1번으로 당선된 강경숙 원광대 중등특수교육과 교수도 교육과 복지 분야의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 한류엔뉴스통신

野 6당 조국 이준석 등 “채상병 특검법 내달 처리 기자회견”

한류엔뉴스통신(발행인 박은미)은 지난 4월 19일 기사를 통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마치고 채상병 특검법을 촉구하는 야당의 기자회견 상황을 보도했다.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녹색정의당 등 6개 야당은 19일 채상병 특검법을 다음 달 초에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해병대 예비역 연대와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의 협조를 요청하며 이같이 요구했다.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5월 초 반드시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며 “국민의 힘이 지속적으로 반대하면 국민적 역풍을 더 강하게 맞을 것이며, 신속한 법안 처리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에 당부한다. 선거에서 심판받은 건 부당한 상황에서 목소리 낼 사람이 부족해서다”라며 “21대 국회 막바지에서 한 번만 옳은 판단을 해달라”라고 촉구했다.

새로운미래 김종민 공동대표는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민심을 거부하고 또 거부권을 행사하면 채상병 특검은 윤석열 특검으로 바뀔 것”이라며 “민심에 순응할 것을 강력 경고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진보·보수,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을 포함한 대통령실 관계자의 관련성이 매우 의심되는 사건에 대한 특검법에 거부하면 국민들은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축유통신문 창간 35주년 특집]

농축산업 스마트화 어디까지 왔니?

‘수직농장’ 미래 농업 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할 듯

최근 이상기후 현상으로 전 세계는 골머리 앓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농축산업은 기후변화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는 환경에 놓이게 됐다.

이로 인해 농업을 비롯해 축산 분야도 이상기후 현상을 이겨낼 수 있는 미래 지향형 농업이나 시설, 환경 등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부 주도 하에 실질적으로 농업·농촌 환경 변화가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 농축산업은 변화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조금씩 발 빠르게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려는 몸부림을 치고 있다. 무엇보다 이상기후 현상 등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농업의 디지털화와 스마트화를 통해 농업의 근본적인 틀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계속되고 있다.

이미 선진국들은 농축산업의 스마트화가 추진되면서 기술개발 등에서 우리를 앞서 나가고 있는 형국이다. 그렇다고 우리나라도 결코 늦은 것은 아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IT기술을 가지고 있어서다.

농업 스마트화-디지털화 전환 건물 안에서 농작물 재배 가능

농업의 디지털화나 스마트화를 하기 위해서는 IT기술 접목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들과 농가들을 중심으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특히 정부도 스마트화-디지털화를 위한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서면서 조금씩 농축산업의 변화를 엿볼 수 있으며, 농업에서 ‘수직농장(vertical farm)’은 미래 농업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단계다. 수직농장은 인공 구조물(건축물 등) 내에서 생육환경(광, 온·습도 등)을 인공적으로 제어해 날씨나 계절 변화와 무관하게 균일·계획생산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수직농장은 ICT 기술을 접목해 원격·자동으로 작물의 생육환경을 제어한다는 측면에서 스마트팜의 범주에 포함되며, LED와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건물 안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시설이다.

수직농장의 장점은 야외에서 경작하는 것과 달리 토양의 면적과 물의 사용량이 적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단식 재배로 면적당 생산량 극대화하고, 기능성 성분 강화 및 친환경 재배 등으로 농산물 가치 제고도 가능하다.

여기에 농작업 자동화로 노동력 절감이 가능하며, 완전한 환경제어(인공광 이용, 온·습도·CO₂ 농도 최적화 등)로 극지방·도심 등 불리한 여건에서도 농산물 재배 가능하다.

건축물 종류에 따라 건물형과 컨테이너형, 재배 방식에 따라 수경·분무·아쿠아포닉스(물고기 양식+수경재배) 등으로 분류된다.

다시 말해 농경지 감소에도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고, 장마와 태풍 등 외부 기후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아 기존 농업과는 큰 차이를 나타낸다. 우리나라에서 대표 기업으로는 경기 평택에 있는 애그테크(첨단 농업) 중소기업 ‘플랜티팜’이 있다.

플랜티팜 국내 최대 수직농장 운영 기술력 인정받아 해외진출도 성공

플랜티팜은 국내 최대 규모 수직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 회사 수직농장은 2만396㎡(약 6,170평) 규모에 이르고, 노지 면적으로 환산할 경우 81만 5,840㎡(약 24만 6,792평)에 달한다. 자체 기술로 농작물 재배에 가장 좋은 조도와 대기 환경을 구성해 생산력과 공간 효율성을 동

시에 갖췄다는 평가다. 실제 평택 중부사업장과 전국 7개 농장에서 하루 생산되는 유리피안 상추는 5톤에 달할 정도다.

실제 이곳에서 재배되는 상추 물량은 일반 노지 생산량의 40배를 넘는다고 한다. 또 폐열 등을 활용해 농작물 제조원가도 획기적으로 낮췄으며, 용수, 전력, 폐수 처리 등 인프라 활용이 가능해 친환경 생산이 가능했다.

무엇보다 수직농장설비 토털 패키지 제품(양산형, 컨테이너팜 설비, 환경제어, AI솔루션) 개발과 유리피안 업체류 작물생산(1,260톤/년), 수직농장 운영 컨설팅 및 교육 등으로 지난해 기준 142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플랜티팜은 이력도 화려한데, 2014년에는 국내 최대 수직형 스마트팜 신축(270평)했으며, 2019년에는 수직농장 증축(330평), 서울지하철 메트로팜을 구축(5개소)하기도 했다.

또한 2022년에는 광주공장을 설립(수직농장 1,400평, 가공공장 700평)했으며,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대상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지난해에는 해외진출에도 성공해 UAE에 410만 달러 수직농장 단지구축을 수주했다.

2028년 153억 달러 시장 확대 정부 규제개선 등 집중 지원키로

이처럼 수직농장은 우리 미래 먹거리 산업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물론 초기자본이 많이 들어 경제성이 떨어지고 실용화하기 어려웠던 문제점이었다.

하지만 LED 등 도입 및 보급되고 인공지능, IoT 등의 기술이 발달하며 생산비 절감으로 점차 실용화되고 있으며, 기후 변화와 관계없이 안



정적인 채소 수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 빠르게 시장이 확장되고 있다.

실제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마케츠앤드마켓츠에 따르면, 지난해 42억 달러 규모였던 글로벌 수직농장 시장은 2028년 153억 달러를 넘길 전망이다. 특히 식량안보에 민감한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수직농장 사업을 수출산업으로 키우려고 각종 규제들을 개선하고 있는 정도다.

정부는 최근 수직농장의 일정 지역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연내 산업집적법 및 산업입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산업단지에 입주 가능한 업종에 수직농장을 추가할 계획이다.

특히 수직농장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가 함께 다양한 지원책도 추진한다. 수직농장용 센서·정보통신기술(ICT)·로봇 고도화, 공장 폐열 활용 수직농장 운영실증 등 기술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수직농장을 스마트팜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확산 사업 및 ‘스마트팜 종합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정책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며, 스마트팜이 무역보험 우대 품목에 추가돼 수출기업이 보험한도 최대 2배, 보험료 20%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농산물 유통 변화가 필요한 이유

유통구조 디지털화 통해 농산물 거래·물류 효율화

최근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 농산물 생산에 문제가 생기며 사과와 배의 경우는 전년 대비 80% 이상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이런 위기 상황은 오늘과 내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현지에서 수급 문제가 발생하면 당연히 유통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그동안 정부는 유통 효율성 제고를 위해 농협 등 생산자단체 중심의 산지유통 규모화와 도매시장 거래제도 개선에 정책역량을 집중했지만 실효성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고, 부작용만 커졌다.

실효성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유통 환경 변화에 정부 정책과 유통 관계자들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따라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이후 국내외 유통시장은 완전한 변화를 맞이하게 됐다.

집에서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전국 어디에서나 전 세계 어디에서나 자기가 원하는 물품을 살 수 있게 됐다. 이는 농산물도 적용된다.

이런 상황은 코로나19가 지나면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시장 규모가 커져 가고 있다.

실제 선진국에서는 이미 아마존 등을 통해 온라인 판매 구조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우리 유통 시장은 디지털 전환이 다른 나라와 산업에 비해 늦은 편이다.

최근 각 산업에서 디지털 전환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고 농산물 유통 분야도 효율성 제고와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도 상거래와 물류를 분리한 전국 단위 온라인 도매거래 시스템을 도입하고 디지털화를 통한 도매시장 거래·물류 효율화를 통한 디지털 농산물 거래 방식의 혁신을 도입해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해 11월 30일 개장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 점차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기존 공영도매시장의 경우 특정 개설 구역 내에서 제한된 유통주체 간 거래만 가능했지만 도매유통체계를 혁신한 디지털 전환으로,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산지·소비자 직거래가 가능해졌고, 도매시장법인의 제3자 판매도 허용됐다. 아울러 중도매인 산지 직접 집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유통단계를 축소해 농산물 유통의 효율성을 높이



는데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 조금씩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

실제 도매시장법인이 제3자 간 여신약정을 활용해 다품목 구매자인 온라인몰을 신규 거래처로 확보한 사례 등 온라인도매시장을 활용한 유통단계 축소로 유통비용 절감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올해 거래목표액을 5,000억 원으로 잡고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고, 2027년까지 거래액을 3조 7,000억 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유통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다. 그동안 엄청난 비용을 투입하고 아

무런 효과와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정책에서 탈피해야 하고, 현장에서 원하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유통 혁신에 나서야 할 때다.

그 시발점이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일 것이다.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와 목표 창출을 이루지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오프라인 시장을 넘어 우리나라 최대의 농산물 유통시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 분명하다.

왜냐면 시대흐름이 그러하다. 시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자기가 원하는 농산물을 거래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장점이자 이득이다. 온라인도매시장이 하루속히 잘 정착할 수 있게 정부가 더욱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

[한국해운신문 창간 34주년 특집]

동서 기간항로의 최종심지를 가다

동남아 허브항 경쟁 제2라운드 막 올랐다

코로나는 이미 오래 전에 끝났다. 이제 막혔던 교역로도 풀리고 인적 물적 교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아직도 우쿠라이나 전쟁이나 홍해 사태, 파나마운하의 갈수로 인한 통항 제한 사태가 상존하지만 어쨌든 세계 정기선항로는 코로나 이전의 정상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해운시장의 앞날은 예측하기 어렵다. 현재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나 기후 환경 변화로 인한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고, 그에 따른 결말은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한마디로 해운산업 미래에는 불확실성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동서기간 항로의 최종심지인 싱가포르-말레이시아의 현재 물류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세계 교역로의 최종심지에 있는 지역에서는 혹시 지정학적 위험 요소는 없는 것인지가 무척 궁금해졌다. 기사가 한국해운신문 창간 34주년 기념 특집의 일환으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를 취재하기로 결심을 굳힌 이유이다.

기사는 1월 22일부터 약 1주일간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를 취재했다. 그 중간쯤에는 싱가포르에서 한국 물류기업 주재원들과 만나 특집 좌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1차 허브항 쟁탈전 싱가포르가 승리

기사가 취재하기로 한 말라카해협의 입구에 있는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의 항만은 동서기간 항로의 최종심지에 위치한 세계적인 '물류 허브'라고 할 수 있다. 최근 경제성장세가 빠른 동남아시아의 모든 물류의 흐름, 특히 컨테이너 물동량의 많은 부분이 이 지역 항만들을 거쳐서 전세계 각지로 퍼져나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말라카해협을 끼고 있는 이 지역은 동서교역로의 최종심이기 때문에 이 주변국가들의 많은 수출입 화물들이 몰려들 뿐만 아니라 동서양을 오가는 수많은 대형 컨테이너선들이 중간 기항지로 이용을 하고 있는, 그야말로 세계 물류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동남아 항만들 사이에서는 싱가포르를 뒤 이을 허브항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다. 세계 최대의 환적 항만 싱가포르가 컨테이너물동량 취급량에서 세계 2위를 아직도 고수하고 있지만, 2000년 이후 일부 물량을 뺏아간 말레이시아의 탄중펠레파스항을 비롯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등의 항만들이 싱가포르를 뒤 이을 차세대 동남아 허

브항이 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물론 현재 컨테이너 취급물동량만 놓고 봤을 때는 항만간의 격차는 크기만 하다. 지난 2022년 세계 50대 컨테이너항만 컨테이너화물 취급실적(세계해운집회소-WSC 통계)을 보면 싱가포르항은 3728만 9000teu를 취급, 세계 랭킹 2위를 지켰다.

동남아시아에서 싱가포르 다음으로 많은 컨테이너 화물을 취급하는 2022년 통계로 세계 랭킹 14위의 말레이시아 포트클랑으로 1322만 3928teu를 취급했으며, 역시 말레이시아의 탄중펠레파스항은 1051만 2000teu를 취급, 세계 랭킹 16위를 마크했다. 이 통계에서 보면 포트클랑은 전년대비 3.6% 감소한 반면 탄중펠레파스항은 10% 이상 증가한 실적이다. 이런 추세가 최근까지 계속됐다고 하면 현재 두 항만간의 취급실적 차이는 더 줄어들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아직은 이들 말레이시아 항만의 취급실적을 싱가포르항과 비교하기에는 그 격차가 너무 큰 상황이다.

이들 말레이시아 항만을 빼만 나머지 동남아 국가 항만들의 컨테이너 취급실적은 더더구나 보잘 것이 없다. 이런 결과치를 놓고 볼 때, 말레이시아의 탄중펠레파스항이 대형선사 머스크의 적극적인 투자로 본격 가동을 시작함으로써 촉발된 2000년 이후의 1차 동남아 허브항 경쟁은 싱가포르의 굳건한 수성으로 싱가포르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도 동남아 지역의 아세안 국가들은 각기 동남아의 허브항을 겨냥해 엄청난 컨테이너항만 개발 계획들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말레이시아 국제항인 포트클랑과 탄중펠레파스항의 원대한 장기 개발 계획은 눈길을 끌기에 충분하다.

더구나 최근 3개로 굳어져 있던 원양 컨테이너항로 얼라이언스체제가 분화를 하기 시작하면서 선사들이 과연 향후 어느 항을 동남아의 허브항으로 선택할지 주목이 되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동남아시아 항만들간에 원양항로 대형선사 유치 쟁탈전은 더욱 치열해 질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3대 얼라이언스 체제의 분화를 이끌어낸 것은 역시 2M 얼라이언스를 구축했던 MSC와 머스크의 결별선언이다. 독자노선을 취하기로 한 세계 최고의 대형선사 MSC와 결별하는 덴마크 머스크는 결국 독일의 하파그로이드와 협력

싱가포르 주재원 좌담회

“외국인 몰려드는 싱가포르 우리도 따라 배워야”



동남아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세계 동서 기간항로의 최종심지라고 할 수 있는 도시 국가 싱가포르에는 우리나라 주요 국적선사를 비롯한 주요 물류기업의 지역본부나 현지법인이 위치하고 있다.

한국해운신문은 세계 무역로의 최종심에서 일하는 이들 주요 물류기업들의 주재원들을 한자리에 초빙하여 창간 34주년을 기념하는 특집 좌담회를 가졌다.

지난 1월 24일 싱가포르의 한 국적선사 회의실에서 펼쳐진 이 좌담회에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왜 싱가포르에 세계적인 기업들이 몰려들고 외국인들이 앞다투어 진출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잘 분석해 우리나라도 그것을 따라 배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가 싱가포르를 롤 모델로 그들의 국가 성장전략을 벤치마킹 해야 한다는 얘기가 좌담회의 결론부분을 장식했다.

국적선사 가운데 HMM 김기태 지역본

부장, 팬오션의 정도식 싱가포르 법인장, 장금상선의 박용환 법인장, 고려해운의 이병기 법인장과 한국선급의 이재천 아태지역 본부장이 참석하고 물류기업 중 유일하게 LX판토스 현지법인 박형철 책임이 참석해 '동남아 지역 물류 현황과 향후 전망'이란 주제로 열린 토론을 벌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동남아 지역의 해운 전망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를 요약해 보면 올해의 해운시황 전망은 홍해사태와 파나마운하 통항제한 사태로 컨테이너나 벌크 부문 모두 당분간은 좋은 시황을 유지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는 언제 어떻게 변할지, 혹은 사태가 언제 수습될지 모르지만 이러한 사태가 진정이 되고 나면 해운시황은 다시 침체되는 어려운 시기가 올 수 있으므로, 선사들은 거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정리됐다.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같은 결정에 따라 오는 2025년 2월이면 탄중펠레파스항에 기항하는 머스크와 싱가포르항에 기항하는 하파그로이드가 연합하는 소위 '제미니 얼라이언스'가 출범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얼라이언스 체제의 분화를 새판을 짜는 대형선사들이 동남아시아의 어느 항구를 환적항으로 선택하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필연코 동남아 허브항 경쟁은 다시 불붙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동남아시아 최고의 허브항이 되기 위한 제2라운드 경쟁이 서서히 막이 오르고 있는 셈이다.

기사는 이러한 동남아 허브항 경쟁에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말레이시아의 포트클랑항을 먼저 취재하기로 했다. 싱가포르가 항만 부지 부족과 고물가, 고비용 때문에 경쟁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측은 저비용과 저렴한 가격의 장점을 내세워 대형선사와 환적화물 유치에 혈안이 되어 있다. 말레이시아 항만들은 적극적인 항만 확장 계획을 세우고 배후 부지를 적극 개발해 나가는 한편, 저렴한 항만이용료를 앞세워 환적화물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동남아 허브항으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는 것이다.

기사의 말레이시아 물류 현황 취재는 포트클랑항 하나로 끝나서 못내 아쉬운 점이 있었다. 싱가포르와 경쟁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의 탄중펠레파스항을 한번 가보고 싶었지만, 싱가포르

취재 일정 때문에 그러지를 못해 못내 아쉬움이 남았다.

기사는 말레이시아 취재를 마치고 1월 23일 말레이시아 항공편으로 싱가포르로 넘어왔다. 오래 전에 두 번이나 와봤던 세계 최고의 환적항, 최고의 물류기능 항만 싱가포르항을 방문 취재하기 위해서였다.

싱가포르에 가서 짧은 기간동안 기자의 뇌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 "정말 싱가포르 사람들 돈벌이에는 귀신이구나"하는 생각이었다. 사방 천지가 우리가 보기에는 별것도 아닌 아이디어로 돈벌이를 하는 '리얼 자본주의'의 전시장 같았다.

"싱가포르를 따라 배우자" 키워드는 이번 취재기간 동안 내내 기자의 뇌리에 각인이 된 화두가 아니었나 생각이 된다.

이번 싱가포르 취재 중에 경험한 또 하나 잊혀지지 않는 장면은 1월 26일 점심에 싱가포르 공항 근처에서 식사를 하면서 싱가포르항 외항에 100여척의 선박들이 한 줄로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모습을 바라봤던 때이다. 어떻게 100여척의 선박이 일렬로 질서 정연하게 대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며, 어떻게 그 많은 선박들이 제 시간에 하역을 마치고 좁은 싱가포르항을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었다. 멀리서 이 광경을 사진에 담느라고 여가져기 장소를 옮겨 다니던 그 장면이 글을 쓰는 이 순간에 다시 떠오르는 것이다.



제5회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은 제5회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을 지난 1일부터 개최하고 있다. 본 공모전은 뉴스일기를 작성하는 습관을 통해 전 국민의 뉴스·미디어 리터러시 함양을 지원하는 대국민 캠페인이다.

올바른 뉴스읽기에 관심이 있는 전국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일상 속 다양한 뉴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본인만의 방법으로 뉴스일기를 작성하면 된다. 지난 네 차례 공모전 동안 5,647명의 국민이 107,149장의 뉴스일기를 작성했다.

일기장 접수는 공모전 공식 홈페이지(www.뉴스읽기뉴스일기.org)를 통해 오는 7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시상식은 11월에 개최할 예정이며, 총 상금 5,600만원을 77명에게 시상한다.

제5회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은 어린이(저), 어린이(중), 어린이(고), 청

소년(중등), 청소년(고등), 성인의 총 6개의 개인 부문으로 진행되며 우수지도자도 별도 선발하여 시상할 예정이다. 지난 대회까지 운영되었던 단체 부문은 뉴스일기장 온라인 배포에 따라 뉴스일기가 개인화되며 폐지되었다. 대신 가장 많이 접수한 학교 3곳에 총 1,000만원어치의 간식을 전달하고 특별 시상을 할 예정이다. 또한 접수 순번이 5로 끝나는 참가자에게 경품 증정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뉴스일기 작성 시 뉴스 저작권 보호를 위해 출처를 명확히 표기해야 하며, 최소 30회 이상 작성해야 한다. 공모전 참가를 위해서는 △공모전 공식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신청하기'를



통해 △원하는 양식을 다운로드하고 △PC, 태블릿 등으로 작성 후 PDF로 저장 혹은 출력 후 작성 및 스캔하여 △공모전 공식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5회 공모전에 대해 보다 자세한 소식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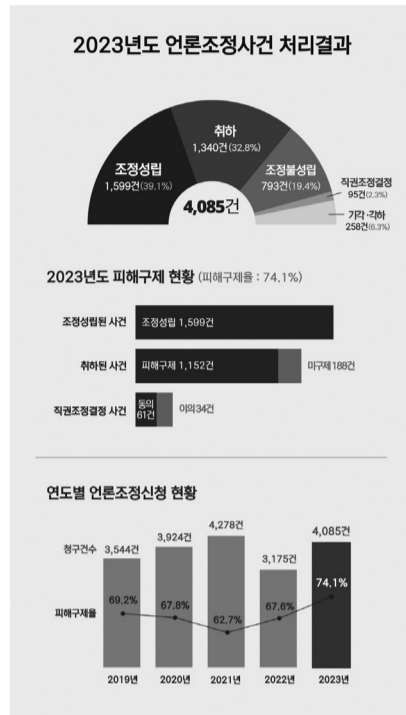
지난해 언론조정신청 4,085건, 피해구제율은 74.1%로 2015년 이후 가장 높아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이석형, 이하 위원회)가 2023년 접수·처리한 조정신청 사건은 전년 대비 28.7%(910건)가 늘어난 4,085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74.1%가 피해 구제되어 지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피해구제율을 나타냈다.

반면 피해구제 평균처리일수는 늘어났다. 사건 접수로부터 종결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말하는 처리일수는 피해구제의 신속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언론중재법은 14일 이내에 조정사건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조정사건 평균처리일수는 21.5일로 법정처리시한보다 1.5배 이상 소요됐으며, 이는 전년(14.8일) 보다 6.7일이 늘어난 수치이다.

위원회는 “현재 중재위원 정원 90명을 모두 채워 운영하고 있으나 조정사건의 증가로 법정기간 내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사건이 집중되는 서울과 경기도 중재부가 증설될 필요가 있어 중재위원 증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작년 위원회가 접수·처리한 사건을 매체유형별로 살펴보면, 인터넷신문 61.0%(2,491건), 인터넷 뉴스서비스 12.2%(498건), 뉴스통



신 5.3%(218건) 등 인터넷 기반 매체가 78.5%(3,207건)였으며, 신문 11.9%(487건), 방송 8.4%(345건), 잡지 0.2%(8건)이었다.

조정신청 사건 중 유튜브 콘텐츠와 관련된 사건은 327건으로 파악됐다. 언론사 유튜브 채널을 직접 조정대상매체로 지정하여 신청한 사례는 35건으로 제작년(14건) 대비 2.5배 증가했으며, 그 외는 기존 매체를 대상으로 조정을 신청하면서 유튜브에 게재된 동일 보도에 대해서도 조치를 함께 요구한 사례이다.

‘신문과방송’ 창간 60주년 기념 행사 개최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이하 재단)은 ‘신문과방송’ 창간 60주년 기념 행사를 지난 4월 9일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개최했다.

신문과방송은 1964년 4월 1일 ‘신문평론’이라는 제호로 창간한 이래 매달 한국 언론계의 의제를 선도하고, 중요한 역사를 기록해왔다.

이날 행사는 신문과방송의 60년을 돌아보고, 개편안을 살펴보는 60주년 기념식(1부)과 신문과방송을 통해 우리 언론의 현재와 미래를 짚어보는 ‘2024, 한국 언론의 지형’ 토론회(2부)로 운영됐다.

1부에서는 최지향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와 이미현 한국언론진흥재단 산업분석팀 과장이 신문과방송 독자 의견 분석 내용과 이를 반영한 개편안을 발표했다. 기념영상 상영과 케이크 커팅식 등 제반 행



사도 진행됐다. 2부에서는 박아란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가 최근 3년간의 신문과방송을 분석해 도출한 언론계 이슈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강주안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재영 SBS 기자, 이성원 한국일보 기자, 변은샘 부산일보 기자가 현장에서 느끼는 이슈에 대해 이

아기를 나눴다. 김효재 이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오늘 행사를 통해 한국 언론의 역동적인 변화와 발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공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면서 “신문과방송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살펴봐달라”고 당부했다.

제목에 ‘극단적 선택’ 사용한 기사, 5월부터 언론중재위원회 시정 권고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이석형, 이하 위원회)가 제목에 ‘극단적 선택’, ‘극단 선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기사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사 제목에 ‘자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라는 ‘자살보도 권고 기준 3.0’에 따라, 언론은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을 대안으로 사용해왔다. 하지만 ‘극단적 선택’은 자살을 사망자의 능동적 선택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으로, 극심한 정서적 고통으로 이성적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한 행위를 개인의 선택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

이다. 또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은 자칫 ‘자살이 선택 가능한 대안 중 하나’라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어, 유사한 처지에 처한 사람들을 모방 자살의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

불가피하게 자살 사건을 보도해야 하는 경우, ‘사망’ 혹은 ‘숨지다’와 같은 객관적 표현이 적절하다.

그동안 위원회는 자살 사망자 또는 유족의 신상을 공표하는 보도, 자살 장소 및 방법 등을 상세히 묘사하는 보도, 자살 동기를 단정하는 보도에 대해서도 꾸준히 시정 권고를 실시해왔다.

위원회는 “자살 보도에는 사회적

책임이 따른다. 높은 자살률은 심각한 사회문제이며, 자살 보도에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언론과 함께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위원회에서 시정권고를 담당하고 있는 조남태 심의실장은 “40분에 한 명, 하루에 36명, 일 년에 만 2천 명이나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 현실을 생각할 때, 조금이라도 자살률을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 자살보도에서 독자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는 용어의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모방 자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6회 청소년 체커톤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이하 재단)은 ‘제6회 청소년 체커톤 대회’를 개최한다.

문체부와 재단은 미디어 역량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학생들이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기를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청소년 체커톤 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환경(지구), 혐오와 차별, 가짜뉴스, 우리 동네 속 허위정보 등 사회 현상과 밀접한 내용을 대회 주제로 정해 학생들의 다양한 시각과 사고력을 증진해 왔다. 올해는 ‘경제’를 핵심어로 정해 ‘경제 팩트 탐험대 - 허위 조작 정보로부터 살아남기’를 주제로 대회를 펼친다.

문체부와 재단은 미디어 역량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학생들이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기를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청소년 체커톤 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환경(지구), 혐오와 차별, 가짜뉴스, 우리 동네 속 허위정보 등 사회 현상과 밀접한 내용을 대회 주제로 정해 학생들의 다양한 시각과 사고력을 증진해 왔다.



올해는 ‘경제’를 핵심어로 정해 ‘경제 팩트 탐험대-허위 조작 정보로부터 살아남기’를 주제로 대회를 펼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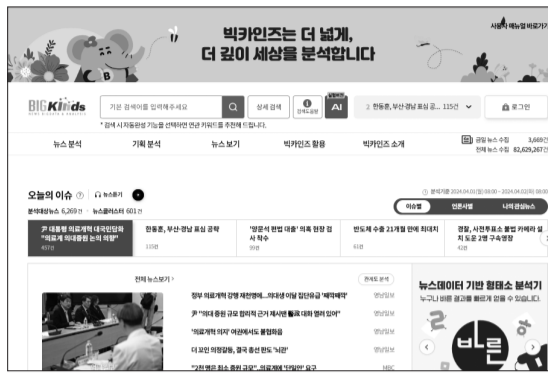
이번 대회 총상금 규모는 3천 4백만 원이며, 대상팀에게는 문체부장관상과 3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참가자 신청은 오는 5월 20일까지 받으며, 11월까지 예선과 본선, 결선 등 대장정이 이어진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www.checkathon.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빅카인즈 서비스 104개 매체로 대폭 확대

국내 최대 뉴스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빅카인즈(www.bigkinds.or.kr)의 뉴스 제휴 매체가 104개로 대폭 확대된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이하 재단)은 올해 초 50개 신규 매체와 콘텐츠 제공 협약을 맺고, 4월 17일부터 빅카인즈서비스를 확대한다. 이용자들은 기존 54개 매체에서 두 배가량 늘어난 총 104개 매체의 뉴스를 빅카인즈를 통해 만날 수 있다.

이번 제휴 확대로 빅카인즈에서 지역 뉴스가 대폭 늘어난다. '지역 뉴스 사막화'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기존 포털 뉴스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지역주간신문들도 신규 제휴사로 다수 포함됐다. 단순히 지역 뉴스가 더 많이 검색되는 것을 넘어 이제 빅카인즈의 빅데이터 분석 기능을 이용해 지역 뉴스의 전문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지역 연구, 지역 정책 개발 등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지역 뉴스와 함께 환경, 미디어, 어린이 등 전문매체 콘텐츠도 확대되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 기사들을 활용할 수 있다.

뉴스 다양성을 높이는 것만이 제휴 확대의 목적은 아니다. 배경에는 최근 각광받고 있는 AI(인공지능)가 있다. 재단은 지난해 AI 기술을 활용한 '빅카인즈AI' 서비스를 개발했고, 올해 2월에는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용자 누구나 빅카인즈AI에게 일상적인 언어로 질문하면, 빅카인즈AI가 답을 알려준다. 특히, 챗GPT 같은 기존 생성형 AI가 수년 전 미리 학습된 정보를 기반으로 답을 생성하는 방식인 것과 달리 빅카인즈AI는 검색증강생성(RAG,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방식을 사용해 매일 업데이트 되고 있는 8,200만여 건의 실제 기사 속 정보를 근거로 답을 찾는다. 그 결과 답변의 신뢰도는 크게 높아지고, AI의 고질적인 문제로 알려진 환각(hallucination)은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재단은 새로



제휴를 맺은 50개 언론사의 기사 정보가 하반기부터 빅카인즈AI를 통해 활용될 수 있도록 연동작업을 진행중이다.

재단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빅카인즈와 빅카인즈AI의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빅카인즈를 통한 손쉬운 뉴스 이용방법은 물론, 빅카인즈 AI 활용법, 뉴스 분석 도구 이용법 등을 동영상으로 제작중이다. 또한 언론사, 공공기관, 미디어 스타트업 등이 빅카인즈의 다양한 기능을 API 방식으로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청년세대와 함께 '청년 복합예술벨트' 예정지 건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취임 6개월을 맞이해 청년예술인, 문체부 청년 인턴과 함께 '청년 복합예술벨트' 예정지인 흥대 일원을 방문해 그간의 청년정책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지난 18일 논의했다.

유인촌 장관은 먼저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조성 현장을 찾아 문체부 청년 인턴 17명에게 '청년 복합예술벨트 조성계획'을 설명하고 청년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어 흥대 레드로드에서 청년예술가 간담회를 열어 흥대 인근에서 활동하고 있는 윤정 도예 작가, 정선호 기타연주자, 김혜진(넥스트컬처랩) 청년창작자를 비롯해 신업 국립오페라단 연수단원 등과 함께 청년예술인들이 '청

년 복합예술벨트' 공간 조성에 바라는 점, 예술 창작 활동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문체부는 청년들에게 문화 정책 분야 일 경험을 제공하고, 정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청년 인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청년 인턴 총 126명이 4월 1일부터 문체부 본부와 각 소속기관 등 총 29개 기관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유인촌 장관은 "지역 사회와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문체부의 핵심 가치 중 하나"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문체부는 청년 예술인들이 성장하고 지역 사회 문화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인공지능-저작권 기준, 전 세계에 알린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작년 12월 27일에 발표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저작권 안내서'의 영문본을 제작해 전 세계에 배포한다.

문체부는 국경 없이 저작물이 이용되는 초연결 사회에서 케이-콘텐츠가 해외 인공지능 학습에 사용되거나 한류 팬들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케이-콘텐츠와 유사한 콘텐츠를 생성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법적 궁금함을 해소하고자 안내서 영문본을 제작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관련 저작권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문체부

는 지난 2022년 10월, '대체불가토큰(NFT)과 저작권 안내서'를 영문으로 제작·배포해 세계적인 저작권 현안에 신속하게 대처한 바 있다.

문체부가 지난해 공개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저작권 안내서' 국문본은 인공지능 사업자의 유의사항, 저작권자가 취할 수 있는 사전 예방 조치, 인공지능 이용자의 유의사항, 생성형 인공지능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로 구성되어 있다.

문체부는 이번 영문본을 국제기구 회의와 국제 행사 등을 통해 배포하고 정책을 알릴 계획이다. 우선 4월 15일부터 열리는 세계지식재산기구

(WIPO) 저작권상설위원회(SCCR)에서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인공지능(AI)-저작권 정책 선진국을 포함한 주요 회원국과 면담을 통해 안내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배포한다. 이를 시작으로 향후 다양한 국제기구 회의와 국제 행사에 안내서를 적극 배포·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케이-콘텐츠를 사랑하는 누구나 쉽게 이번 안내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문체부(www.mcst.go.kr/english)와 한국저작권위원회(www.copyright.or.kr/eng), 한국문화정보서비스의 영문 누리집(www.koscis.go.kr/eng)에서도 제공할 예정이다.

'심이 있는 삶'을 지원하는 기업·기관 찾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지역문화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정순제, 이하 진흥원)과 함께 오는 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심'이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해, 일과 여가의 균형을 지원하는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2024 여가친화인증' 신청을 받는다.

여가친화인증제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해 근로자가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지원하는 기업과 기관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2년부터 2023년까지 총 495개 기업과 기관이 인증을 받았고, 인증사들은 일 중심 사회에서 여가가 있는 사회로의 변화를 선도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신규인증 또는 재인증을 받은 여가친화인증기업·기관에는 인증이 유효한 3년 동안 △ 여가제도 관련 홍보 및 문화·여가활동 지원을 비롯해 △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청년

친화강소기업 사업' 등의 정부 지원 사업 신청 시 우선 지원, △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 '건강친화기업 인증' 등 정부 인증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특전을 제공한다. 우수 10개사에는 문체부 장관상과 지역문화진흥원장상 등의 포상도 수여한다.

인증제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www.mcst.go.kr)와 여가친화지원 누리집(happyoffice.rcd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심 있는 기업·기관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신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는 30일 오후 2시부터는 온라인 사업설명회(https://bit.ly/4aRGUnz)를 열어 인증 절차와 신청 방법을 안내한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평가지표별 제출 자료 작성 등과 관련해 상담이 필요한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5월 9일~10일, 세 차례 온라인 집단컨설팅을 진행한다.

최종 선정 결과는 서류심사, 면접 조사 등을 거쳐 10월 중에 발표한다. 인증식은 11월에 열릴 예정이다.

'청와대 누리집' 전면 개편, 외국인 이용 편의 증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청와대재단(이사장 정갑영, 이하 재단)과 함께 청와대 누리집 '청와대, 국민 품으로(opencheongwadae.kr)'를 지난 16일 전면 개편해 국내외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진했다.

먼저 최근 증가하는 외국인 관람객 수요에 맞춰 기존 한국어, 영어로 제공하던 누리집에 일본어, 중국어 서비스를 추가했고 외국인은 간단한 이메일 인증만으로 예약할 수 있는 영문 예약시스템을 도입했다.

또한 관람 예약 기능과 청와대에 대한 정보를 한 페이지 안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청와대에서 열리는 문화행사 예약 기능을 추가해 관람 편의도 높였다. 특히 개편한 청와대 누리집에서는 본관, 영빈관, 춘추관의 내부 가상현실(VR) 360도 콘텐츠와 편의시설 이용에 대한 상세정보를 추가해 이용자가 온라인으로도 청와대를 생생하게 살펴볼 수 있게 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청와대를 찾은 외국인 관람객은 '24년 1/4분기

기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5배 이상 증가한 39,807명을 기록했으며 앞으로도 외국인 관람객의 지속적인 증가세가 예상된다"며 "향후 외국어 예약 서비스를 확대(일본어, 중국어)하는 등 외국인 편의를 높이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회원사 인사

한국수산경제

한국수산경제 대표이사에 김성호 전 한수연 회장 취임

한국수산경제 신문 새로운 대표이사에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 인종양연합회 18대 회장(사진)이 지난 1일자로 취임했다.



신임 김 대표이사는 "한국수산경제 신문은 수산업경영인의 신문으로 수산전문지 중 최고 발행부수와 구독률을 자랑한다"며 "어업인들을 대표하는 신문으로 불리는 만큼 수산 분야를 올바르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어업인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광역 및 기초지자체와 일선 수협이 수산업 비전을 듣고 알리는 창구 역할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회원사 동정

이뉴스투데이

카페 소울브릿지 도서 기증

독서신문·이뉴스투데이(발행인 방재홍)를 발행하는 서울미디어그룹 모회사인 카페 소울브릿지가 지난 3월



28일 고성군에 2000만 원 상당의 도서를 기증했다. 이번 기증식은 서울브릿지가 위치한 지역 사회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지역 교육·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기증식은 고성군청에서 진행됐으며 서울미디어그룹 방재홍 회장과 함명준 고성군수, 유세아 서울브릿지 대표를 비롯한 군청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방재홍 회장은 "책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 수단을 넘어서, 다양한 사상과 문화가 세대를 넘어 전해지는 소중한 매개체"라며 "이번 기증을 통해 고성군민들이 보다 폭넓은 지식을 접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축산신문

이상호 발행인, 이달의 나눔축산인상 수상

축산신문 이상호 발행인(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이 지난 2월에 열린 나눔축산운동본부 정기총회에서 '이달의 나눔축산인상'과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날 '이달의 나눔축산인상'은 이상호 발행인과 함께 이남숙 양평축산농협



전 상무, 이제만 대전충남양돈농협 조합장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韓基督上報

안홍철 사장, 연신을 빛낸 동문상 수상

한국기독교보 사장인 안홍철 목사(사진)가 지난 1월 29일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제19회 백양세미나·연세신학인의 밤' 행사에서 기독교 언론에 헌신한 공로로 '연신을 빛낸 동문상'을 수상했다.



한국대학신문

한국대학신문-맑은소프트 업무협약



한국대학신문(발행인 홍준)은 클라우드 기반 학습 관리 시스템(LMS : Learning Management System) 전문기업 맑은소프트와 제휴 협력을 맺고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평생교육 콘텐츠 확대 보급에 나선다. 이에 지난 3월 26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대학에 에듀테크 기반 온·오프라인 통합 교육 체계를 보급하고, 학생과 지역 주민 등 다양한 이들을 위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 뜻을 모았다.

이날 협약식에는 홍준 한국대학신문 대표이사과 문화춘 신사업팀 부

장, 하근호 맑은소프트 대표이사 등이 참석해 원격교육 활성화와 지역 주민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 실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교육 콘텐츠 보급 확대를 위한 협업에 나선다. 특히 맑은소프트가 보유한 클라우드 기반 LMS를 토대로 지역의 다양한 학습자를 포괄하는 교육 콘텐츠 보급에 힘을 모은다. 또한 국내 대학에 에듀테크 기반 학습 관리 서비스와 콘텐츠 유통 체계를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회원사 개편

모바일 및 인터넷 메인화면 전면 개편

의협신문

의협신문이 모바일 및 인터넷 메인화면을 전면 개편하며 독자들을 찾아가고 있다.

먼저 인터넷 의협신문의 경우 깊이있는 취재 기사를 인터페이스 중심에 배치했다. 또한 단순 스트레이트성 기사보다 시사성을 순발력있게 반영하는 기획 기사를 전면 배치하고 조회수가 높은 콘텐츠를 기사 양쪽으로 나눠 볼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 더불어 포토뉴스와 영상뉴스 등도 전면 배치해 '읽는 신문'에서 '보는 신문'을 지향하는 트렌드는 강조했다.

모바일 의협신문도 기획력있는 취재 기사를 중심으로 심플한 디자인 아래 배치를 수정했다. 기사마다 관련 사진과 제목을 함께 게시해 독자들이 보고 싶은 기사를 더욱 쉽게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메인화면에 게시된 기사 바로 아래 연관 기사를 붙여 관련 이



슈를 지난 이슈와 연속 선상에서 읽을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

이번 개편으로 통해 기존 메인화면보다 심플하고 시원한 디자인을 통해 가독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의협신문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독자들이 더욱 보고 싶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협회보 칼럼 모집

- ◆ 원고내용 : 각 산업별 이슈에 맞는 주제로 자유롭게 작성
- ◆ 대상 : 한국전문신문협회 회원사
- ◆ 접수방법 : 웹하드(www.webhard.co.kr) 아이디 kosna, 비밀번호 kosna [GUEST] 폴더 내 등록 메일 kosna1964@naver.com
- ◆ 문의 : ☎ 02-334-7251~2

전문신문협회보

1989년 5월 1일 창간 www.kosna.or.kr

한국전문신문협회 회원사

한국전문신문협회 임원사

이 컷은 본 협회 회원사임을 나타내는 표시

회장·발행인 김광탁 명예회장·편집인 박두환 편집고문 김시중

부회장 함정기 김관홍 정재환 김종철 | 상임고문 방재홍 이 사 이근호 박연준 강현욱 김종규 | 감 사 백용태·오경섭 | 고 문 함용현·김시중·유태우·이덕수·양영근

07217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41길 11(당산동4가) 당산 SK V1 센터 E동 407호 대표전화 (02)334-7251 팩스 (02)334-7279 구독신청·광고문의 (02)334-7252 메일 kosna1964@naver.com

발행처 한국전문신문협회 | 인쇄처 한국씨티에스

34th 전문신문 인쇄의 역사 SINCE 1989

한국전문신문협회와 한국씨티에스는 전문신문의 역사를 함께 합니다.

34년 전통의 기술력과 최신 설비(HAMADA / TKS 윤전기 (4색도) ; 35,000부/H)를 갖춘 경쟁력 있는 기업, 200여개 신문제작 대행으로 실력이 검증된 기업, 고품질 인쇄와 안정적 프로세스를 자랑하는 (주)한국씨티에스는 모든 공정을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전문 인쇄소입니다. 고객과의 약속을 중시하고 최고의 만족으로 보답하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여종 신문제작 대행



34년 전통 인쇄 기술력



차별화된 시스템

본사

서울시 중구 중림로 50-1, 2층 Tel. 관리부 02) 362-1199 / 영업부 02) 362-6677 / 전산실 02) 362-5311

제작센터

서울시 부일로 815번길 56-67 (온수동) Tel. 02) 2684-3377

2024년 3월 정기간행물 신규 등록 현황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기간: 2024.03.01.~2024.03.31.)

등록번호	제호	회사명(법인명)
서울 다50809	알찬분양정보	(주)한틀
서울 다50808	만민뉴스	만민뉴스사
서울 다50807	호남향우회 호남의 소리	(주)공중보건복지방송
서울 다50806	코리아웨딩타임즈	코리아웨딩타임즈사
서울 다50805	부방대위클리	부방대위클리사
서울 다50804	강동 아파트 신문	강동아파트신문사
경기 다50779	(주)경기사랑케이팝	(주)땅콩치킨
경기 다50778	경기시니어뉴스	경기시니어뉴스사
강원 다01247	FN TODAY SOKCHO (파이낸스 투데이 속초)	파이낸스투데이속초사
광주 다00306	크리스천신문	크리스천신문사
광주 다00305	더코리아플러스광주	더코리아플러스광주사
전남 다00448	고흥엔NEWS	디자인나무(주)

언론조정중재 사례집: 기타 사례

2022서울조정111 손배청구

논평 보도와 관련, 의견 표명의 전제되는 사실에 대해 반론 보도문을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개정안에 따르면 신청인 노동조합이 공영방송 운영위원 추천권을 갖게 되어 특정 정당과 손잡고 공영방송을 장악할 길이 열린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했다.

□ 신청이유

신청인 노동조합은 해당 노동조합이 공영방송 운영위원 추천권을 갖는다고 법률 개정안에 명시되거나 특정 정당과 손잡고 공영방송이나 언론 장악을 꾀한 사실도 없음에도, 신청인 노동조합이 언론 관련 단체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허위 보도해 단체의 사회적 평가를 크게 떨어뜨렸으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조정대상보도가 논평에 해당해 정정보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재부는 보도내용을 단순한 의견표명으로서만 보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며 의견표명 또는 논평의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반론을 보도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권고했고, 보도문의 길이 및 게재방법 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피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2차 조정기일을 지정했다. 이후 양 당사자가 반론보도를 게재하기로 합의해 조정이 성립됐다.

자료: 언론중재위원회

책자발간

불교신문
만선동귀집 총송

불교신문 발행이자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스님이 '만선동귀집 총송' 강설집을 펴냈다. 만선동귀(萬善同歸)라는 말은 세간 및 출세간의 무량한 선행으로 일심(一心)으로 돌아감을 뜻한다. 무량한 선행인 만선은 성불의 인(因)으로 함께 일불승의 과(果)로 돌아감을 설명하고 있다.

법안종의 제5대 조사이자 정토종 제6조인 영명연수 선사는 '아미타불의 화신'이라 불릴 정도로 대승불교권에서 존중받는 고승이다. 영명연수 선사는 만선동귀집에서 만 가지의 선행으로 일심으로 돌아가는 가르침을 전했다.

진우스님은 용흥사본 만선동귀집 소장자라는 인연으로 이 책을 번역했다. 만선동귀집이 가히 팔만대장경의 내용을 담았다고 할 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호랑이 새끼도 호랑이인 것처럼 100권의 내용이 3권으로 줄었다 해도 여전히 난해한 내용이 넘기 힘든 산이 되어 일반 대중들이 접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 다행히 만선동귀집의 마지막 부분에 계승 형태의 요약본, '총송(總頌)'이 있었다. 이에 총무원장 스님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만선동귀집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자기 삶이 변화하는 인연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만선동귀집 총송 강설집을 출간했다.

가격: 22,000원 / 문의: 02-732-9926



세무사신문

2024 조세법전

세무사신문(발행인 구재이)을 발행하는 한국세무사회가 '2024 조세법전'을 발간했다.

이번 '2024 조세법전'은 올해 상당 부분의 세법이 개정되었고 비과세 감면 등 조세특례나 과세요건의 변동도 많았기에 회원들이 법문 하나하나 제대로 확인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개정 내용 반영에 집중했다.

특히 최신 개정법령 및 중요한 해석사례를 충실하게 수록하면서 최근 개정된 법령은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음영 처리했으며 10개 주요세법의 주제어를 가나다순으로 색인화하고, 주요 단어를 세분류하여 조세법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조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정취지를 수록하고 개정법령의 부칙 경과규정을 편주로 보강하였으며, 예규·판례, 통칙, 관련 법령 등 자료를 풍부하게 반영했다.

앞서 세무사회는 전 회원을 대상으로 예약판매 신청을 받았고, 사전 주문한 회원에게 우선 배송을 시작할 계획이다. 또 무상으로 조세법전을 받을 수 있는 조세자료 구독회원에게도 무상으로 1권씩 배부한다. 추가로 구매를 희망하는 회원이나 조세자료 미구독 회원은 한국세무사회 조세전문서점 홈페이지(book.kacpta.or.kr)에서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있다.

가격: 100,000원 / 문의: 02-597-2941



■회원사 발행인 칼럼 | 기독교연합신문 양병희 사장

마음의 빗장을 치라



콜럼버스가 미 대륙을 발견했을 당시에 묘목 한 그루가 있었다. 수많은 세월 속에 태풍과 눈사태를 맞았으나 거뜬히 이겨낸 나무는 어느새 500년이 지나 거목이 되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고 말았다. 나무 학자의 연구 결과, 거대한 나무를 쓰러트린 건 다름 아닌 하찮은 딱정벌레였다. 작은 딱정벌레가 나무속까지 갹아먹어 들어간 것이다.

그렇다.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 인생이 무너지는 것이 큰 것 때문이 아니다. 가정이 깨지고 관계가 파괴되는 것도 큰 것 때문이 아니다. '이까짓 것쯤이야' 하는 작은 것들이 불씨가 되어 견장을 수 없이 무너트리는 것이다.

명예와 신뢰를 쌓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다. 지도자의 작은 거짓말, 말실수 하나가 힘들게 쌓아 올린 공든 탑을 순식간에 무너트린다. 무너지는 것은 큰일 때문이 아니다. 특히 이번 22대 총선에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이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국회의원으로서는 누리는 특권 의식에 안주하는 순간, 견장을 수 없이 함몰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정을 위해 비전을 제시하고 다음세대와 미래를 꿈꾸는 희망찬 지도자 되기를 기대한다.

어둠은 무서운 것이다. 어둠은 잠든 시간이다. 적들이 틈을 타는 시간이다. 어둠 속에서는 적을 구분할 수 없다. 원수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지 못하도록 신앙도 어둠을 조심해야 한다 (마 13:25). 어두운 환경, 어두운 장소, 어두운 행동을 조심하자. 대개 사람들은 어려웠을 때보다 성공한 후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 과정보다 일을 성취한 후에 무너지기가 쉽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구원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 그리스도인이 안일, 세속, 타협을 경계하며 자기 관리를 하지 못하면 인생도 신앙도 무너진다.

어둠에서 원수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성문을 닫고 빗장을 치고 깨어 기도하자.



5월 창간기념일을 축하합니다

5월1일(1989년) 한국수산경제

5월13일(1970년) 농업인신문

5월2일(1988년) 시정신문

5월15일(1961년) 한국교육신문

5월4일(1989년) 가스신문

5월24일(1971년) 의학신문

5월6일(2003년) 일요저널

5월25일(1981년) 농수축산신문

5월9일(1996년) 식품외식경제

5월31일(2011년) 한국농촌경제신문

왜? 전문신문에 광고해야 하는가?

정보 홍수시대에 전문신문은 광고매체로서 장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전문신문은 일반신문과 같이 계절이나 요일에 의한 부수의 변동이나 신문구독자의 변동에 따른 불안정이 없다.

전문신문의 광고는 광고주가 원하는 광고 시장이 명확하다. 광고목표에 도달하기 쉽기 때문에 메시지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독자의 관심이 높은 기사와 병행해서 게재되는 전문신문 광고는 광고의 충격이 높다. 따라서 광고주가 자사 상품이나 기업 이미지에 알맞은 전문신문을 선택하면 매우 효과적인 광고가 가능하다.

전문신문은 일간지와 달리 한번 보고 버리는 신문이 아니라 오래 보존됨으로써 광고의 생명이 길다.

전문신문은 지면 허비가 적기 때문에 타 매체와의 비교해서 광고비용이 싼 효율적인 매체이다.

전문신문은 독자의 목적 의식과 강하게 밀착되어, 전문사항에 대하여 높은 안목을 갖고 편집되기 때문에 광고에 대한 관심도도 높다.

전문신문의 기사면은 비교적 시각효과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광고면이 상대적으로 주의집중효과를 크게 받을 수 있다.

전문신문 광고시점에 이벤트, 기획행사 등을 동시에 진행한다면 유통경로에 쉽게 접근하면서 광고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일반신문, 뉴미디어의 정보량 범람의 시대에 독자는 정보에 대해 방어적, 선택적 경향이 강해져 전문신문을 더 신뢰하게 된다.

특히 한국전문신문협회에 가입된 전문신문은 그 품격이 검증된 만큼, 안심하고 광고를 의뢰할 수 있는 좋은 매체이다.